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
지식인의 독서생활

- 운대영(惲代英)일기를 중심으로 -

2012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권 강 미

오사 신문화 운동 시기
지식인의 독서생활

- 운대영(惲代英)일기를 중심으로 -

임 상 범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사 학 과

권 강 미

인 준 서

권강미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책의 역사가 책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추적하는 것이라면, 독서의 역사는 독자가 책을 어떻게 소비했는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최초의 책은 지금과 같은 형태는 아니었다. 처음에는 갑골(甲骨), 청동(靑銅), 돌, 대나무, 나무, 비단 등으로 다양했다. 하지만 휴대와 열람의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을 다 갖춘 종이가 일반적인 책의 재료가 되었다.

종이로 만들어진 책이 가격경쟁력을 갖추었지만 20세기가 되기 전까지 책의 가격은 당시의 경제력보다 비싼 물건이었다. 책의 가격이 저렴해지려면 인쇄술의 발명, 충분한 수요의 증가와 그리고 생산원가의 절감이 필요했다.

인쇄술은 늦어도 당초에 발명되었지만, 초기에는 주로 조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국한하여야 한다. 그리고 송대에 실행된 과거제는 책의 필요로 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하였다. 생산원가의 절감은 종이가격의 하락, 생산과정의 간략화를 통해 이루어 졌다.

책은 인쇄주체에 따라 관각본, 방각본, 가각본으로 나뉘고, 인쇄형태에 따라 필사, 목각본, 활판본으로 나뉜다. 당시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희박하여 제목은 같으나 내용이 미세하게 다른 판본이 존재했다. 또한 다양한 방언으로 나오기도 했다. 20세기 이전까지 책을 접하는 방법은 물려받기, 선물받기, 대여, 필사, 구입이 있다.

20세기 초반은 이전 보다 많은 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독서에서도 그러했다. 이러한 변화를 알기 위해 초기 공산당 주요 인사며, 『계급투쟁(The class struggle)』를 번역한 운대영을 통해 살펴보려 했다. 운대영은 1917년부터 1919년 까지 일기 기록이 남아있다. 일기는 주요 1차 사료로써 이미 많은 연구에 이용이 되었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여 운대영의 독서생활을 두텁게 묘사(thick description)할 것이다.

운대영은 유년기에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1911년 이후 현대적인 교육을 받은 인물이다. 그는 어느정도 광고가 발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서목(書目)을 통해 책정보를 얻었다. 그리고 그는 전국적인 우편제도의 시행으로 우편으로 국내외에서 책을 구입했다. 그는 많은 양의 책을 구입하였는데, 구입한 책의 절반이 고료로 산 책이었고, 구입한 책의 삼분의 일 정도는 신문과 잡지였다. 오사신문화 시기는 많은 잡지의 출판으로 인해 단행본의 출력이 위축될 정도였고, 출판된 단행본 중에서 번역본의 비중이 높았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서술할 수 있는 작가가 얼마없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잡지가 가진 어느 정도 거시성과 비교적 빠른 출판주기라는 장점이 잘 활용된 것이기도 할 것이다. 그는 책을 폐쇄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주위의 사람들에게 개방했다.

운대영은 오사사건을 기점으로 보는 책이 달라졌다. 정치적으로 진보적인 잡지나 사실관계 파악에 중점을 두는 신문을 즐겨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담론을 따라 위생과 생식의학책을 보기도 했다. 오사신문화시기 무한(武漢)은 도서관이 유명무실한 도시였다. 운대영은 도서실을 만들어 많은 이들에게 개방하려 노력하였다. 뿐만 아니라 공독주의(工讀主義)를 실천하기 위해 책을 팔기도 하였다. 그가 파는 책은 당시 지적 흐름을 따르고 있었고,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하기도 하였다.

운대영이 책을 구입하는 방법, 읽는 책의 종류는 이전과 비교하여 변화가 있었지만 책의 정보는 서목을 통해 접한다는 것은 여전했다.

목 차

논문개요

머리말	1
I. 운대영과 책	6
1. 신해혁명전 책의 역사	6
2. 신해혁명부터 1917년까지 운대영과 책	11
3. 1917년부터 1919년까지의 운대영과 책의 구입과정	15
4. 1917년부터 1919년까지의 운대영과 책교류	26
II. 운대영의 독서생활	30
1. 운대영의 독서성향	30
2. 책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38
결론	43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1> 환선서국 책 구입 목록	18
<표-2> 서성신기 (書城新記)	20
<표-3> 게재된 원고와 고료	22
<표-4> 원고게재 현황	23
<표-5> 서성신기 중 단행본 수량	24
<표-6> 서성신기 중 사진 수량	25
<표-7> 책 교류	27
<표-8> 잡지 목록	36
<표-9> 계지도서실 서적 판매목록	40
<표-10> 계지도서실 서적 판매현황	41
<표-11> 이군서사 판매서적	41

머리말

책을 쓰는 것은 저자가 홀로 하는 과정이지만, 한편의 책이 만들어지고 소비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저자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독자는 저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책을 이해하기도 하고, 저자와 독자의 사이에는 출판업자 그리고 서점이 있기 때문이다. 책은 지식과 사상을 담는 외형적인 그릇일 뿐만 아니라, 인쇄소과 출판업자의 노동의 산물이고, 저자와 출판사와 서점이 먹고사는 수단인 경제적 교환 대상이며, 때로는 정치적 갈등의 사상적 씨앗이 되기도 하는 등 엄밀히 분류할 수 없는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¹⁾

책의 역사는 기본적으로 인쇄물을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경로를 추적하는 연구 영역이라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저자에서 출발해 인쇄업자 · 도서 상인 · 독자에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커뮤니케이션 회로’ 각 단계와 전 과정이 시간과 공간에 따라 어떻게 변천 혹은 발전했으며, 그것이 당대의 경제적 · 사회적 · 정치적 · 문화적 시스템과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책의 역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²⁾

그렇다면 책의 역사가 재구성하려는 커뮤니케이션 회로의 마지막 경로인 독서의 단계를 집중적으로 탐구하는 것이 독서의 역사이다. 독서의 역사는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라는 육하원칙에 입각해 과거의 독서 양상과 관행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밝히는 데 힘쓴다.³⁾ 즉, 책의 역사가 식물의 뿌리와 줄기라면 독서의 역사는 뿌리와 줄기에서 양분을 받아 피는 꽃인 것이다.

1)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서울 : 책세상, 2010년, 27쪽.

2) 육영수, 위의 책, 95쪽.

3) 육영수, 위의 책, 96쪽.

중국사에 있어 책과 독서에 대한 연구 성과는 출판업과 지식인들의 관계⁴⁾를 분석하거나 독서습관의 변천분석⁵⁾ 그리고 어떻게 왜 그 정보를 전달했는가에 집중되어 있다.⁶⁾ 정치권력이 책을 어떻게 이용하였는가에 대한 연구도 있다.⁷⁾

책과 독서에 대한 연구 흐름을 짚어보는 연구로는 장중민(張仲民)의 「從書籍史到閱讀史－關於晚清書籍史/閱讀史研究的若干思考」와 번광철(潘光哲)의 「서구 당대 사학의 동향과 近代中國歷史圖의 ‘심층묘사’-‘근대 중국의 독서, 출판과 문화’에 대한 타이완의 연구 소개」가 있다. 번광철은 독서사를 하는데 있어 새로운 사료의 발견보다는 기존의 사료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중요한 1차 사료중 하나인 일기에 주목하였고, 일기를 남긴 많은 인물들 중 운대영에게 주목하였다. 운대영을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운대영(運代英)⁸⁾은 오사사건이 일어난 후 무한에서 시위를 주도했다.

-
- 4) 孫慧敏, 「翰林從商：張元濟的資源與實踐」,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年；李仁淵, 「新式出版業與知識分子」,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年；_____, 『晚清的新式傳播媒體智識分子』, 臺北：稻鄉出版社, 2005年.
- 5) 余芳珍, 「閱讀消永日：良友圖書與近代中國的消閑閱讀習慣」,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年；周綾琪, 「閱讀與生活：惲代英的家庭生活與『婦女雜誌』之關係」,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年.
- 6) 潘光哲, 「『時務報』和它的讀者」, 北京：『歷史研究』 2005年 第5期, 2005年；_____, 「開倉‘世界知識’的公共空間－以『時務報』的解釋違例」, 『史林』 2006年 第5期, 2006年；張仲民, 「出版與文化政治：清末出版的生殖醫學書籍及其讀者」, 『學術月刊』 第41卷 第1期, 2009年；王寄生, 「民國時期的日書漢譯」, 『近代史研究』, 2008年 第6期, 2008年.
- 7) 민두기, 「現代中國에 있어서 教科書와 時代狀況－1920년대末·1930년대初의 初等學校教科書의 內容分析－」, 『東洋史研究』 第41輯 1992年；이영옥, 「건륭제의 ‘찬란한’ 성세와 맹자읽기」, 『東洋史研究』 第108輯, 2009년；박영철, 「宋代 法書의 禁書와 粉壁의 條法－宋代 王法主義의 一考察－」, 『중국사연구』 第68輯, 2010년；황지영, 『명칭출판과 조선전과』, 서울：시간의 물레, 2012년.
- 8) 王宗華·張光宇·歐陽植梁, 「五四時期惲代英同志的思想發展和革命實踐」；守和, 「惲代英同志革命思想的發展」 두 논문 모두 中國社會科學院近代史研究所編 『紀念五四運動六十周年學術討論會論文集』 3 북경；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0年；정문상, 「5·4시기 惲代英의 사상과 행동」, 황원구교수정년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동아시아의 인간상』, 서울：혜안, 1995년；_____, 「國民革命期(1923~1927)惲代英의 革命觀과 學生運動論」, 『歷史學報』 第 134·135合輯, 1992년；姬田光義,

1921년 7월경부터는 공산주의적 입장을 표명하고 1922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사천(四川)에서 공산당 입당하였다. 1923년 8월 청년단(青年團)에 참가하여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되었다.

중앙집행위원이 된 그는 네 사람으로 구성된 중앙국에서 편집을 담당하여, 그해 10월에 『선구(先驅)』를 대신하여 새로운 기관지 『중국청년(中國青年)』을 창간했다. 중국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중앙집행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집부는 국내·국제적으로 중대한 정치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항하거나 선전하는 역할을 했다.

이 외에 그는 『소년중국학회총서(少年中國學會叢書)』 편집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이 시기 카우츠키의 『계급투쟁(The class struggle)』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 이 중문번역본은 당시 공산주의사상에 관심 있는 이들의 애독서였다.

그는 상해집행부에서도 선전부(宣傳部) 비서(秘書)를 맡았다. 국공합작기 중공은 ‘국민당강화’방안으로 조직보다는 선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러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상해 집행부에서 선전부의 위상과 선전부로 비서로 활동하던 운대영이 차지하는 그의 중공 내 역할과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다.⁹⁾

공산주의 이론을 물론이고 이 당시 새로운 사상은 서구와 일본에서 수입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것을 운대영이 어떻게 흡수하고, 자신의 언어로 만들었는가를 분석하는 것은 그의 사상 형성과 나아가 초기 공산당 활동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1차 사료인 일기를 주목하여 어떻게 독서를 하였는가를 분석할 것

「『惲代英日記』讀書筆記-惲代英を通して『五四』を見る」 『五四運動思想の再檢討』, 東京 : 中央大學出版部, 1985년.

9) 정문상, 「國民革命期(1923~1927)惲代英의 革命觀과 學生運動論」 『歷史學報』 第134· 135輯, 1992년, 201~203쪽.

이다. 이제까지 일기는 운대영의 활동상을 구성하는데 이용되었을 뿐 일기 자체를 분석한 연구는 없다. 운대영의 일기는 1917년 1919년까지 기록이 남아있다.

그는 어머니의 영향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다. 현재 남아있는 일기는 오사신문화운동시기의 1917년부터 1919년까지 3년 치이다.¹⁰⁾ 그 기간 동안 기록의 밀도는 고르지 않은데, 1917년과 1919년의 일기는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1917년의 일기는 매우 자세하다. 일 년 결산으로 사람들과 주고받은 편지, 어느 출판사에 무슨 원고를 보냈고, 어떤 책을 샀고, 돈을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 자세히 기록했다. 그에 반해 1918년 일기는 약 5개월가량 썼다¹¹⁾ 이 일기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를 찾아 두텁게 묘사(thick description)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의 상황을 완벽하게 알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기는 사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앞, 뒤 정황이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운대영의 일기 외에 전기와 회고록 그리고 소설 등을 참고하여 독서에 대해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다.

운대영은 책을 읽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로 사회개량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책을 권하고, 도서실을 만들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독서와 떼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독서생활이라 하려고 한다.

이에 본고는 우선 기존의 연구성과를 종합하여 운대영이 활동이기 이전의 책의 생산과 유통에 대해 개괄할 것이다. 이후 일기를 바탕으로 책을 어떠한 경로로 알게 되었고, 언제 어떻게 구입했는지에 밝힐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운대영의 독서가 시대적 상황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알아낼 것이다.

10) 『運代英日記』, 北京: 1981年, 이후에는 『일기』라 지칭한다.

11) 일기는 2월 12일부터 시작해 7월 14일에서 끝이 난다.

운대영 일기를 바탕으로 한 분석이 하나의 표본을 제시하여 그 당시 독서 생활을 복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운대영 연구의 공백을 메꿀 수 있을 것이다.

I. 운대영과 책

1. 신해혁명전 책의 역사

책의 재료는 다양하여 종이로만 만든 것이 아니라 갑골(胛骨), 청동(靑銅)¹²⁾, 돌, 대나무, 나무, 비단 등으로도 만들어졌다.¹³⁾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 책들 중에 휴대와 열람의 편리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것이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다. 제지술(製紙術)은 실을 표백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것인데 이를 개량한 사람이 채륄(蔡倫)이다. 채륄 이전의 종이는 글자를 쓰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포장의 용도였고 종이가 등장하기 전에는 모든 기록은 목간(木簡)과 죽간(竹簡)에 기록했다. 책을 만드는 재료는 종이로 갑작스럽게 변화한 것이 아니라 3~4세기에 걸쳐 목간과 죽간에서 종이로 바뀌었다.¹⁴⁾

출판물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송대부터이다. 출판물이 증가하기 위해서는 인쇄술의 발명과 생산원가의 절감 그리고 충분한 수요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또 이 세 가지는 서로 순환하며 영향을 주었다.

출판물 증가의 바탕이 되는 인쇄술은 늦어도 당(唐) 초기에 발명되었으나, 인쇄기술에 대한 기록이 드물기 때문에 초반에는 주로 조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국한하여야 한다.¹⁵⁾ 지금까지 발견된 초기 인쇄물이 거의 대부분이

12) 청동기는 예기(禮器)로 쓰여 권력과 지위를 상징하기도 하였고, 일상용구, 주기(酒器), 식기, 제기(祭器)등으로 쓰이기도 했다. 이것은 책이라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장편의 명문이 있는 청동기에는 가문의 역사를 기록하여 영원히 전해지게 하였으므로 이것을 '청동서'라 칭한다. 나수보(羅樹寶), 앞의 책, 37쪽.

13) 나수보(羅樹寶), 앞의 책, 13~14, 33쪽.

14) 도미야 이타루(富谷至), 임병덕 옮김,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파주 : 사계절출판사, 2005년, 36, 97, 208쪽.

15) 周紹明(Joseph P. Mcdermott), 何朝暉 譯, 『書籍의社會史』, 北京 : 北京大學, 2009年, 9쪽.

불경과 불상에 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승려들이 활발히 인쇄술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¹⁶⁾

생산원가의 절감은 종이가격의 하락, 생산과정의 간소화 그리고 원가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각공(刻工)의 공임 하락이 가져왔다. 종이가격이 비싸, 명대 황실소유 도서 중에는 송대에 만들어진 책의 뒷장을 활용하여 만들어진 것이 있을 정도였다. 종이 가격이 저렴해진 것은 강서(江西)에서 산림(山林)이 개발되고, 15~16세기에 복건(福建)과 절강(浙江)에서 가격이 싼 죽지(竹紙)가 대량생산되면서 부터이다.¹⁷⁾ 인쇄관련기술들은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간소화하는 쪽으로 나아갔고, 이를 통해 생산원가가 절감되었다.¹⁸⁾

인쇄술 발명과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것과 더불어 책 수요가 충분해진 것은 송대부터 실시한 과거제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요가 많았던 것은 거업서(學業書)였다.¹⁹⁾ 과거제의 실시로 식자층(識字層)이 늘어났고, 하급관리와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필사(筆寫)를 하는 염가노동자가 되었고 이는 다시 책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다.²⁰⁾

청말 무렵까지 책은 인쇄형태와 인쇄주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사람이 손으로 쓰는 필사본(筆寫本), 목판에 글자를 새겨 종이로 인쇄하는 목각본(木刻本)²¹⁾, 활자 인쇄본(活字本)이 있었다. 활자 인쇄는 한자(漢字)의 모든 글자와 크기에 따라 활자를 준비해야 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인쇄주체가

16) 나수보(羅樹寶), 조현주 옮김, 『중국 책의 역사』, 서울 : 다른생각, 2008년, 82쪽.

17)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23쪽.

18) 장정방식이 간소해지고, 간각하기 편리한 글자체로 바뀌고 명대부터는 분업을 하기 시작했다. 자세한 내용은 周紹明(Joseph P. Mcdermott), 何朝暉 譯, 『書籍의社會史』, 北京 : 北京大學, 2009년를 참고.

19)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강길중 · 김지영 · 장원철 옮김, 『우아함의 탄생-중국 강남 문화사』, 서울 : 민음사, 2009년, 77쪽.

20)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66쪽.

21) 중국에서는 조판인쇄(雕版印刷)라고 하나 이 글에서는 목판인쇄라 한다.

초반에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높았다. 신해혁명 이전에도 당시 경제수준보다 인본(印本)의 가격이 높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필사본이 유통되었다.²²⁾ 목각인쇄는 삼만 권 이하의 서적을 생산할 때는 여전히 가격경쟁력이 있어 20세기 초까지도 활용되었다.²³⁾

인본을 주도한 주체에 따라 관각본(官刻本)과 방각본(坊刻本) 그리고 가각본(家刻本)으로 나뉜다. 관각본은 말 그대로 관에서 주도하여 각인(刻印)한 책이다. 대체로 관각본은 권위의 상징으로 크고 화려해서 구하기도 어렵고 읽기에 편한 책은 아니었다. 관각본을 바탕으로 방각본이 다시 나오기도 했다.²⁴⁾ 방각본과 가각본은 큰 차이는 없다. 방각본은 서적 인쇄를 주로 하는 서방(書房)에서, 가각본은 문인들이나 부유한 집안에서 임시로 장인들을 고용하여 각인한 책을 일컫는다.²⁵⁾

서적을 접하는 방법은 물려받기, 선물받기, 대여, 필사, 구입이 있다. 서적은 재산이므로 소유자가 사망하고 나면 아들을 중심으로 분배된다. 중국은 장자 상속이 아니라 균분(均分) 상속이기에 장서규모는 분배되면서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천일각(天一閣)과 같이 장서규모를 확대해가며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

관리들은 책을 선물하면서 인맥을 쌓았고, 특히 인본은 그 희소성으로 인해 선물하기에 좋은 물건이었다. 특히 관인은 인쇄의 질이 좋아 각광을 받았다. 명초의 관리 양사기(楊士寄)의 경우는 소장도서 중 인본의 비율이 관리가 된 후 늘어난다.²⁶⁾

책을 대여하는 것은 15세기 무렵부터 가능해졌다. 주로 도시하층민들의

22)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2009년, 67쪽.

23) 좋은 목관의 경우는 사만부도 찍을 수 있지만 보통 만 오천 권에서 삼만 권 정도이다.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18쪽.

24)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앞의 책, 95쪽.

25) 나수보(羅樹寶), 앞의 책, 117쪽.

26)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80~82쪽.

오락거리인 희곡과 소설을 주로 대여해주었고, 대여 기간은 15~20일 정도였으나 다른 사람과 돌려보는 금했다.²⁷⁾

필사는 구할 수 없는 책을 소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었다. 청초의 장서가로 유명한 주이존(朱彝尊)은 황실 도서관 한림원(翰林院)에 필사가를 데리고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책을 필사하게 하기도 했다.²⁸⁾ 또한 필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는 한 달에 5만자 정도를 할 수 있었다.²⁹⁾

책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서점은 6세기 무렵부터 화북에서 등장하기 시작했고, 16세기 초 강남 대다수 도시에서 보편화 되었다. 서점이 집중된 도시는 소주(蘇州), 항주(杭州), 남경(南京), 북경(北京)과 같은 대도시와 개봉(開封)과 무한(武漢) 같은 소도시 들이다.³⁰⁾

이 당시 서적이 출판되면 재가공할 수 없는 한 사람만의 단독적인 작품이라는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글을 덧붙이기도 했고, 여러 곳에서 출판하기도 했다. 1819년에 출판된 번역 기독교 소설 『장원양우상론』 초판은 12장으로 구성되었으나 판본은 42종을 상회하고, 작품의 길이와 내용상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네 가지 계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기록된 언어도 다양했다. 이해하기 쉬운 문언(文言), 문언과 관화(官話)의 중간형태(半自半文體), 관화로 기록되었고, 그 외 복건(福建), 영파(寧波), 광둥(廣東), 한구(漢口) 방언 등이 있다.³¹⁾ 제목은 같으나 미세하게 내용이 다른 판본들이 존재했고, 저작권³²⁾이라는 개념에서 꽤 자유로웠으나 저자가 원치 않으면 향의나

27)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85~86쪽.

28)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126~127쪽.

29) 『사고전서(四庫全書)』 등교관(謄校官)은 한 달에 5만 자 분량의 책을 필사하는 것이 임무였다.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든다』, 서울 : 푸른역사, 2007년, 238쪽.

30)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87~ 88쪽.

31) 한구 방언본은 1883년 한구 성교서국(聖敎書局)에서 23면으로 간행되었다. 오순방, 앞의 글, 275, 292, 295쪽.

32) 1910년 청 정부가 최초의 저작권법인 《저작권장정(著作權章程)》을 공포했다. 이것은 민국시기에도 계속 영향을 주었다. 黃鎮偉, 『中國編輯出版社』, 蘇州 : 蘇州大學出版社, 2003년, 290

제재를 하기도 했다. 주자(朱子)는 건양(建陽)에서 출판된 자신의 저작이 금화(金華)에서 무단으로 간행된다는 것을 접하고, 그 지역 지인에게 출판을 막아 달라 부탁하기도 했다.³³⁾

서적의 생산과 유통에 있어 송말부터 강남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다. 북경은 소주보다 각공들의 공임이 비싸고,³⁴⁾ 출판의 재로조달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³⁵⁾ 소주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공임이 저렴하였으나³⁶⁾ 쌀 게 비지떡이라 인식이 지배적이었다.³⁷⁾ 청대의 북경은 전국의 책을 흡수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승문정책(崇文政策)을 위한 한 방편으로 책의 수집과 출판이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³⁸⁾

동치(同治)년간에 출판업에서 근대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이 기독교 이념 선전을 위한 인쇄물을 출판하기 위해 출판사를 세웠고, 그들을 통해 근대적인 출판업과 인쇄술의 노하우가 전해왔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하는 서국(書局)들이 많이 생겼고, 광서(光緒)년간에는 절정을 이루었다. 관방서국의 번영과 서양 출판기술의 유입이 판매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 학술에 있어 중요한 근거인 송원대 고서(古書)들이 희귀해져 가니, 고서를 수집해 파는 것이 이익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생산과 유통이 합쳐져 있던 서방에서 각각 생산과 유통을 전담하는 것으로 분화해갔다. 판매를 담당하고 간혹 각인을 하는 서방, 대부분 자체 각인을 하면서 위탁 각인도 하던 서방 그리고 위탁 각인만 전담하는 서방으로 나뉘어 갔다. 중국 최초

쪽.

33)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앞의 책, 82쪽.

34)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90~91쪽.

35) 황지영, 『명칭출판과 조선전과』, 서울 : 시간의 물레, 2012년, 199쪽.

36)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91쪽.

37)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앞의 책, 98쪽.

38) 자세한 내용은 다음 책 참고 황지영, 『명칭출판과 조선전과』, 서울 : 시간의 물레, 2012년, 175~185쪽.

의 석인(石印)기술은 1879년 점석재석인서국(點石齋石印書局)이 사용하였고, 1882년 석인 한 『강희자전』은 초판4만부, 재판 6만부를 팔았다. 이는 중국근대출판 사상 최초의 판매기록이다.³⁹⁾

2. 신해혁명부터 1917년까지 운대영과 책

운대영이 태어나기 30여년 전 무렵 무렵부터 책 출판은 근대적인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그는 1895년 오남매 중 셋째로 무한에서 태어났는데⁴⁰⁾ 그의 조부는 유명한 화가이었고, 아버지는 염세국(鹽稅局)에서 근무했다.⁴¹⁾ 그는 책을 접하기 쉬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했다. 아버지를 따라 노하구(老河口)⁴²⁾로 이주하기 전까지 그는 무한에서 전통적인 교육을 받았다.⁴³⁾ 무한은 호북성의 성도(省都)이며 서점이 있는 몇 안 되는 도시 중 하나이다. 또한 청 말에는 목판인쇄를 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학(儒學)의 입문서라 할 수 있는 책들을 출판했다.⁴⁴⁾ 운대영은 무한에서 인쇄된 책들을 접

39) 중국번(曾國藩)이 1863년(동치 2년) 안휘(安徽)안경(安慶)에서 설립한 금릉서국(金陵書局) 서국 외에 절강서국(浙江書局), 송문서국(崇文書局), 광아서국(廣雅書局), 호남서국(湖南書局), 회남서국(淮南書局), 강서서국(江西書局), 산둥서국(山東書局), 복주서국(福州書局), 귀주서국(貴州書局), 운남서국(雲南書局)등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黃鎮偉, 앞의 책, 291~ 293쪽.

40) 이시기의 무한의 명칭은 무창(武昌)이나 논문에서는 무한으로 통일한다. 무한은 양자강을 중심으로 양자강의 남쪽지역을 무창, 서북지역을 한구(漢口)로 부른다. 무창지역에서 강변 쪽은 조계지(租界地)이다. 그리고 운대영은 무창에서 생활했고, 종종 배를 타고 한구를 찾았다.

41) 1909년 노하구 염세국직을 맡았다. 田子淪·任武雄·李良明, 『惲代英傳記』, 湖北省: 湖北人民出版社, 1984年, 2쪽.

42) 호북성 중진(重鎮)

43) 『백가성(百家姓)』, 『삼자경(三字經)』, 『제자규(弟子規)』, 『천자문(千字文)』, 『논어(論語)』, 『맹자(孟子)』, 『대학(大學)』, 『중용(中庸)』, 『유학경림(幼學瓊林)』을 시작으로 이 책들이 익숙해지고 나면 『시경(詩經)』, 『서경(書經)』, 『좌전(左傳)』, 『춘추(春秋)』를 배웠을 것이다. 張羽·鐵鳳, 『惲代英傳』, 北京: 中國青年出版社, 1995年, 6쪽.

44) 무창의 취유당(聚有堂), 한구의 평도당(宏道堂), 선인당(善仁堂)이 『백가성』, 『삼자경』, 『천자문』, 『유학경림』 등을 인쇄하여 판매했다. 皮明麻林主編, 『近代武漢城市史』,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年, 259쪽.

하기 쉬웠을 것이다.

노하구에는 학교가 없는 까닭에 어머니의 지도아래 집에서 책을 읽었고, 그 지역 우체국장에게서 영어를 배웠다. 그의 어머니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지 않았으나 당시송사(唐詩宋詞)를 운대영 형제들에게 가르쳐 주었다고 한다.⁴⁵⁾ 이 외에도 이시기에 그는 『강감이지록(綱鑑易知錄)』, 『고문관지(古文觀止)』, 『전국책(戰國策)』 등 역사책을 읽었다.⁴⁶⁾ 『음빙실문집(飲氷室文集)』 등을 읽으며 양계초(梁啓超)의 영향을 받았고, 담사동(譚嗣同)도 좋아했다고 한다.⁴⁷⁾ 운대영 동생의 회고에 따르면 그는 용돈을 받아 우편으로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서 칸트(Kant), 몽테스키외(Montesquieu) 등의 외국서적, 임금남(林琴南)의 번역소설 등을 구입했다고 한다.⁴⁸⁾

번역서는 청말 부터 급격히 증가한다. 양무운동시기 관(官)에서 주도한 번역 사업에서는 병서(兵書)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⁴⁹⁾. 소설은 청말 까지 잡기(雜技)로 인식되어 주변부에 위치했고, 정치권력에 의해 종종 금서가 되었다. 강소순무(江蘇巡撫) 정일창(丁日昌 : 1823~1882)은 수차례 금서목록을 작성하여 유통과 소유를 제재하였다. 그는 『금병매(金瓶梅)』와 같은 음사(淫事)소설뿐만 아니라 자신이 젊은 시절에 즐겨 읽던 『홍루몽(紅樓夢)』과 그 계열 작품도 금서 목록에 대거 포함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함풍(咸豐)11년(1861년) 그가 강서(江西) 노릉현(廬陵縣) 지현(知縣)으로 있을

45) 中共黨史人物研究會 編; 胡華 主編, 『中共黨史人物傳』 第五卷,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1年, 1쪽.

46) 田子淪 · 任武雄 · 李良明 共編, 앞의 책, 2쪽.

47) 田子淪 · 任武雄 · 李良明 共編, 앞의 책, 4쪽.

48) 人民大出版社 編, 『回憶惲代英』, 北京: 人民大出版社, 1982年, 224쪽. 이 외에도 일기를 살펴보면 『이습우화』(1917년 2월 18일)와 『천로역정(天路歷程)』(1917년 8월 22일)을 1917년 전에 읽었음을 알 수 있다. 『運代英日記』, 北京: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1年, 36, 134쪽. 노하구에서 보낸 시기동안 운대영은 섹스피어의 희극, 리벤스테인(Libeskind) 『십자군동정기(十字軍東征記)』, 코난 달리(Conan Dali)의 『금풍추우록(金風秋雨錄)』을 읽었다는 글도 있다. 이 자료의 신뢰도가 높지 않아, 각주처리를 한다. 張羽 · 鐵鳳, 앞의 책, 50쪽.

49) 왕병흠(王秉欽), 앞의 책, 44쪽.

때 태평천국(太平天國)군과 직접 전쟁을 한 경험 때문이다. 그는 태평천국 운동이 끝난 후 사회적으로 해이해진 사상을 바로잡기 위해, 소설과 희곡을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간주해 금지하였던 것이다.⁵⁰⁾ 소설은 시와 같이 하나의 문학영역이 아니라 제재의 대상이었다. 그러므로 번역소설은 더욱 드물 수밖에 형편이었다.

양계초가 이러한 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는 1898년 「번인정치소설서(翻印政治小說序)」(『청의보』 제1권)를 통해 서양 소설의 번역을 적극 권장하면서 번역 소설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를 끌어올리고자 했다. 또한 1902년에는 「소설과 군중 통치의 관계를 논하다(論小說與群治之關係)」(『신소설(新小說)』 제1권 제1기)를 발표해 외국 번역 소설이 사회 진보와 사회 개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⁵¹⁾ 이러한 흐름 속에 문학번역은 경세제민(經世濟民), 민지계발(民智啓發) 혹은 정치개량(政治改良)의 수단이 되었다. 번역을 함에 있어 문학적 가치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용성 혹은 유신정치선전과 정치의식계발을 우선시 하게 되어 정치소설을 번역이 주를 이루었다. 혹은 민지를 계발하기 위해 대량으로 과학소설을 번역했다. 이밖에 탐정, 모험, 군사소설들도 있었다.⁵²⁾

1902~4년 무렵의 번역서의 비율은 일본서적 60.2%, 영국서적 10.3%, 미국서적 6.0%, 독일서적 4.7%, 프랑스서적 2.8%, 러시아서적 0.7%, 이외 국가적 15.2% 이다. 소설의 수치는 확인할 수 없지만 이러한 경향을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서양서적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중국어로 번역한 중역본(重譯本)을 고려해야 한다. 이 당시 중국은 생경한 서양언어로 된 서적을 보는 것을 보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일본어 책을 보는 것이

50) 최용철, 「명청시대 금서소설과 정치 이데올로기」 『중국인문학회 2003년 추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3년, 62~64쪽.

51) 왕병흠(王秉欽), 앞의 책, 48쪽.

52) 王寄生, 「民國時期的日書漢譯」 『近代史研究』 2008年 第6期, 2008年, 52쪽.

오역(誤譯)의 위험이 낮고 이해하기 쉬웠을 것이다.⁵³⁾

운대영은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노하구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무한으로 돌아왔다. 1913년 무한에 있는 중화대학 예과(中華大學 豫科)에 입학하여, 그 후 중화대학 철학과에 진학했다. 대학 진학 중인 1915년 심보수(沈葆秀)와 결혼을 했다.⁵⁴⁾ 1917년 일기로 미루어 보면 그는 학교에서 철학(중국철학 · 철학사 · 인도철학 · 논리학) · 영어 · 독일어 · 인류학을 배웠다.⁵⁵⁾ 1918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그 대학 부속 중학교 교사가 되었다. 앞서 번역서는 일본어책이 주를 이루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과서 또한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이 들어선 후에도 일본어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교과서들이 있었고, 청 말에 번역한 교과서가 재판되기도 했다. 그러나 오사사건 이후 교육논리와 교육체제 방면에서 유럽과 미국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특히 미국의 영향이 강했다. 번역서 외에도 원서를 중국대학에서 교과서로 채용하기도 했다⁵⁶⁾. 운대영은 일본의 영향이 많은 교과서로 교육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재직할 때, 영어원서를 교재로 사용했다.⁵⁷⁾

일기는 1917년부터 남아있지만, 1917년 이전에도 가지고 있던 책이 적지 않았다. 1917년 7월 한 달 동안 집에 있는 책을 정리하는데 문학(文學), 자

53) 王寄生, 「民國時期的日書漢譯」 『近代史研究』 2008年 第6期, 2008年, 47, 49쪽.

54) 田子淪 · 任武雄 · 李良明 共編, 앞의 책, 7쪽.

55) 『일기』, 213쪽.

56) 王寄生, 앞의 글, 50~51쪽.

57) 1919년 1월 19일 나는 용(溶)선생을 대신해 제 1 · 2 독본(讀本)을 사용하고 계속해서 『Murche's Science Reader』 4까지 나간다. 『Reader』는 6반까지 사용하고, 삼반은 주요교재로 삼는다. 공화국의 교재는 결점이 크고, 그 쓰임새 또한 보충지위에 머물러 있다. 과학 교과서 내용은 영어로 상세히 따져 풀어야 한다.

나는 4 · 5반을 다음 학기에 『고등영서문전(高等英書文典)』 진도를 다 나가고, 졸업 전에 『영문편지가 가이드(英文書札指南)』, 『작문요략(作文要略)』, 『문학요략(文學要略)』 섭렵할 것이다. 『일기』, 475쪽.

1919년 3월 2일 칠 반은 『Murche's Science Reader』 삼권을 사용한다. 『일기』, 509쪽.

학(字學), 지리(地理), 법정경제(法政經濟), 격치(格致), 산학(算學), 체육(體育), 예술(藝術), 미술(美術), 가정용(家庭用), 소학용(小學用), 소설, 경서(經書), 외국서적으로 분류했다. 경서류는 108권에 달했다고 기록했다.⁵⁸⁾ 이 책들은 노하구에 있던 시절부터 운대영이 구입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을 것이다.

3. 1917년부터 1919년까지의 운대영과 책의 구입과정

운대영은 책에 대한 정보를 주로 대부분 출판사에서 보내온 서목(書目)이나 출판관련 인쇄물을 통하여 알았다. 서목은 운대영이 출판사에 요청을 해서 받기도 했고⁵⁹⁾, 혹은 우편으로 책을 구매할 때 서목이나 출판관련 정보가 담긴 인쇄물⁶⁰⁾을 보내주었다.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58) 『일기』, 110~114쪽.

59) 1917년 2월 21일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엽서를 보내 『도서회보(圖書匯報)』를 요청했다. 『일기』, 223쪽.

1917년 4월 8일 상무인서관에서 『도서회보』 제 66호를 받았다. 『일기』, 235쪽.

60) 1917년 1월 4일 Hanson Bennett Co.에서 목록을 보내왔다. 『일기』, 231쪽.

1917년 3월 9일 유정서국(有正書局)에서 『서성신기(書城新寄記)』를 보내왔다.

1917년 3월 10일 이문사서국(伊文思書局)에서 Magazine Guide를 보내왔다.

1917년 3월 16일 청년진보사(靑年進步社)에서 서목(書目)을 보내왔다. 왕은장(王蘊章 : 부녀잡지) 편집인이 『서성신기(書城新記)』를 보내왔다. 『일기』, 234, 692쪽.

1917년 3월 30일 유정서국에서 『서성잡기(書城雜(新)記)』를 보내왔다. 『일기』, 235쪽.

1917년 4월 30일 상무인서관에서 『도서회보(圖書匯報)』를 보내왔다. 『일기』, 236쪽.

1917년 5월 19일 상무인서관에서 보통등기우편으로 구입한 책을 보내 주면서 『서성신기(書城新記)』를 보내왔다. 다른 우편으로는 『출판계』(出版界)를 삼사월 분을 보내왔다. Milo Bar Bell Co.에서 목록을 보내왔다. 『일기』, 237쪽.

1917년 6월 14일 상무인서관에서 『출판계(出版界)』를 5월호를 보내왔다.

1917년 6월 29일 중화서국(中華書局)에서 『서성신기(書城新記)』 보내왔다. 『일기』, 239쪽.

1917년 7월 1일 중화서국에서 목록을 보내왔다.

1917년 7월 15일 환선서국(丸善書局)에서 소포로 목록을 2권 보내왔다. 『일기』, 240쪽.

1917년 8월 30일 상무인서관에서 『출판계』를 보내왔다. 환선서국에서 구매한 책을 보내면서 철학과학 서목을 보냈다. 『일기』, 241쪽.

보내준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책을 사는 데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문사서국(伊文思書局)에서 보내온 인쇄물을 보고 『위백사대사전(韋白斯大字典)』을 사고 싶어 하였다.⁶¹⁾

우편으로 받은 출판관련 인쇄물 말고도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서도 책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1917년 5월 29일 일기에 따르면 중화서국이 진행하는 책 할인행사에 대한 광고를 접하고 사고 싶은 책이 세권이 있다고 기록했다.⁶²⁾ 이중에서 『불학대강(佛學大綱)』 한권만 구매로 이어진 듯하다. 1917년 결산인 서성신기(書城新記)에는 등장하지 않으나, 보낸 편지 목록에는 중화서국에 구매요청을 하면서 환 2원을 보내는 기록이 있다.⁶³⁾

운대영은 서목에서 대부분의 책 정보를 얻었다. 그러나 광고에서 얻은 정보가 적은 것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광고가 드물었기 때문은 아니다. 이 당시 신문들과 잡지들은 정론지(政論志) 성격이 강했다. 이와 달리 뉴스전달에 치중한 상업지인 『신보(申報)』는 1912년에 광고부분을 개혁하였다. 이에 힘입어 광고는 급속히 늘어나 1915년 4월에 이르러 광고지면은 기사지면을 능가하고 광고가 수입의 주요원천이 되었다.⁶⁴⁾ 이 시기 신문광고를 살펴본다면 한권의 책에 대해 알리는 것보다 서목처럼, 책 제목을 나열하는 식의 광고였다. 또한 출판사의 주력상품은 교과서였기 때문에 교과서광고가

61) 『일기』, 237쪽.

62)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 『불학대강(佛學大綱)』, 『태서논리학안(泰西論理學案)』 『일기』, 91쪽.

63) 『일기』, 229쪽.

64) 1912년 겨울에 『신보』를 인수한 사랑재(史量才)는 광고학에 조예가 깊은 장죽평(張竹平)을 사장으로 영입했다. 장죽평은 우선 광고부문 개혁하여 광고주를 늘리려 했다. 개혁 방법으로는 신문사 최초로 광고판매과(廣告推銷科)를 설치하고 그 아래 외근 부서와 광고 설계를 두었다. 당시에는 광고 대행업체가 없었고, 『신보』는 광고디자이너를 고용하여 상품의 성격과 고객의 의향이나 요구에 맞추어 광고를 제작했다. 宋軍, 『申報의興衰』, 上海: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年, 90~91쪽. 언론과 광고의 관계에 대해서는 무라이 히로시(村井寬志), 「민국(民國)시기 상해에서의 언론과 광고」 『도시인문학연구』, 제2권 2호 참고. 광고이미지 분석에 대해서는 하세봉(河世鳳), 「近代中國의 新聞廣告 讀解」 『中國史研究』 제19집, 2002년과 王儒年, 『慾望의 想像』, 上海人民出版社, 2007年 참고.

대부분이었다. 광고문구의 한 예는 뒤에 나올 회고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광고문구가 책의 서문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⁶⁵⁾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책을 구매하기 위해서 해당 출판사 혹은 부탁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우편으로 요청한 경우가 많았다.⁶⁶⁾ 1917년 4월 8일 군익서사(群益書社)에 우표 2각 1분을 보내면서 『신청년(新靑年)』 3권 1호를 요청했다.⁶⁷⁾ 잡지의 구독해지도 우편으로 이루어졌다.⁶⁸⁾ 우편으로 책 구매가 용이해진 것은 전국적인 우편제도가 시행된 1896년부터라 할 수 있다. 또한 우편제도의 실시는 신문과 잡지 그리고 단행본의 출판량이 증가하는데 기여를 했다.⁶⁹⁾

65) 張仲民, 「出版與文化政治:清末出版的生殖醫學書籍及其讀者」 『學術月刊』 第41卷 1月號1, 200年, 136쪽.

66) 1917년 1월 13일 유정서국에 14원에 해당하는 외서를 보내달라고 편지를 보냈다. 『일기』, 222쪽.

1917년 2월 21일 왕온장에게 부탁한 『십구세기사(十九世紀史)』 를 먼저 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부탁했다. 『일기』, 223쪽.

1917년 2월 28일 이문사공사(伊文思公司)에 2원 3각을 첨부하면서 잡지 세종을 구독 신청하는 배달증명을 보냈다.

1917년 3월 8일 Milo Bar Bell Co에 『Free Strength』 를 요청하는 엽서를 보냈다. 『일기』, 224쪽.

1917년 3월 15일 한구유정국(漢口有正局)에 인화(印花) 3각보내면서 『치신론(起信論)』 구매를 요청했다. 상해유정국(上海有正局)에 인화 3각을 보내면서 『치신론』 과 소설 여러 종을 요청했다.

1917년 3월 17일 International Health Resort에 『Health Ability Book of Proof』 를 요청했다.

1917년 3월 18일 Von Boeckmann에 『Super-Conscious Breathing』 을 요청했다. 『일기』, 225쪽.

1917년 4월 9일 유지현(兪志賢: 신원미상이나 출판사 직원으로 추측)에게 우표4각과 서권 4원을 함께 보내면서 책을 요청했다. 『일기』, 226쪽.

1917년 5월 8일 유지현에 인화 9각 2분을 보내면서 책을 요청하고 『출판계』 를 구독 신청했다. 『일기』, 228쪽.

1917년 7월 8일 유지현에 양(洋) 4각을 첨부하면서 책을 요청했다. 『일기』, 229쪽.

67) 『일기』, 226쪽.

68) 이문사공사에 엽서를 보내 『언이잡지(言二雜誌)』 를 그만 보겠다고 하였다. 『일기』, 149쪽.

69) 존 킹 페어뱅크 · 멀 골드만, 김형중 · 신성곤 옮김, 『신중국사』, 서울: 까치, 2005년, 320쪽.

<표-1> 환선서국 책 구입 목록

토마스 모어(Thomas More), 『유토피아(Utopia : 乌托邦)』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웃는 남자(The Man Who Laughs : 笑面人)』 ; 톨스토이(Tolstoi), 『이반 일리치의 죽음(The Death of Ivan Ilich : 伊万·里奇之死)』 , 『세바스토폴 이야기(Sebastopol Sketches)』 *; 마크 트웨인(Mark Twain), 『Information wanted, and other sketches』 **; 잭 런던(Jack London), 『비포 아담(Before Adam : 亚当之前)』 ; 에밀 수베스트르 (Emile Souvestre), 『지붕위의 철학자 (An Attic Philosopher in Paris : 貧民窟의 哲學者)』

<참고 : 『일기』 , 250쪽. 오자(誤字)나 현재와 제목이 다른 경우 책 제목을 현재 것으로 변경했다. *중국어 제목 확인할 수 없음, **중국어와 한국어 제목을 확인할 수 없음>

영문도서는 일본의 환선서국(丸善書局)에 우편으로 신청을 했다. 보름 정도면 올 것이라고 기록했다.⁷⁰⁾ 우편기록에 따르면 7월 15일에 책을 소포로 발송했다는 편지가 왔고, 이틀 뒤 책이 모두 도착했다. 구입도서는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유토피아(Utopia)』 외에는 문학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는 주문한 영어책 중에서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를 우선적으로 읽었다.⁷¹⁾ 잭 런던의 『비포 아담(Before Adam)』은 자신이 쓰려고 구상했던 인류학(人類學)소설과 유사하다며 이것을 번역하여 출판사에 투고할 계획을 세웠다.⁷²⁾ 그는 일본에서 영어서적을 주문했지만, 중국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와 관련하여 조가벽(趙家碧)⁷³⁾은 다음과 같이 말

70) 1917년 6월 17일 『일기』 , 85쪽. 1917년 이후 에도 환선서국에서 책을 주문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다. 1919년 6월 22일 환선서국에 편지를 보냈다. 『일기』 , 566쪽.

71) 1917년 7월 17일 『일기』 , 116쪽.

72) 1917년 8월 1일 『일기』 , 124쪽.

73) 조가벽은 『양우화보(良友畫報)』로 유명한 양우도서공사(良友圖書公司)에서 편집자로 활동했다. 그는 『중국신문학대계(中國新文學大系)』를 기획하여 1936년에 출판했다. 자세한 것은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 서울 : 소명출판, 2005년, 8장 『중국신문학대계

했다.

열세 살 무렵 쯤 학교 도서관에서 『소년잡지(少年雜誌)』를 보다가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Alice in Wonderland : 阿麗思漫遊奇境記)』라는 동화가 출판 되었다는 광고를 보았다. 광고에서 말하기를 구미(歐美)의 아이들 중에서 이 소설을 읽지 않는 이가 없으며, 더욱이 싫어하는 이가 없다고 했다. 나는 상해에서 의술공부를 하고 있는 여섯 번째 숙부에게 편지를 써, 집으로 돌아올 때 책을 사다 달라 부탁했다. 토요일 저녁 숙부가 상무인서관에서 사온 동화책을 볼 수 있었다.

책 내용은 번역이 좋지 않아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원서를 보기로 결심했다. 서문 속의 원서제목을 기록해두었다가 토요일에 상해에서 돌아오는 여섯 번째 숙부를 기다렸다. 그는 나에게 어려울 것이라 했지만, 사흘 뒤에 우편으로 포켓용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받았다.⁷⁴⁾

조가벽은 1908년생이므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광고에서 접한 열세 살은 1921년 무렵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상해에는 1917년에 일본인이 일본 서적을 판매하는 우치야마 소텐(內山書店)이 있었다.⁷⁵⁾ 꼭 외국에서 외국서적을 주문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우편구입 외에 서점에서 책을 사는 경우도 있다.⁷⁶⁾ 무한에는 최소 4곳 이상의 서점이 있었다. 1867년 설립 “송문서국(崇文書局)”, 1902년 설립 “상무인서관한구분관(商務印書館漢口分館)”, 1912년 설립 “중화서국한구분국(中華

(中國新文學大系)』를 참고.

74) 趙家璧, 『編輯憶舊』, 北京: 三聯書店, 2007年, 8쪽.

75)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 소명출판, 2005년, 350쪽.

76) 1917년 3월 26일 처남 중청과 함께 나가 책을 샀다. 『일기』, 55쪽.

書局漢口分局)”이 있다. 1919년부터는 “상무인서관한구분관”이 위치한 변화가를 중심으로 서점들이 모여 서점거리를 형성하였다.⁷⁷⁾

신간에 대한 정보는 서보와 서목을 통해 접하고, 대부분의 책을 우편으로 주문했던 운대영은 어떠한 서적을 구입했는지는 위에 언급한 서성신기를 통해 미루어 볼 수 있다. 이 목록은 제목, 출판사, 가격, 구입일자를 기록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통계를 내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지만, 사례연구에서 나온 수치는 질적분석의 중요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총합	잡지와 신문류			단행본			사전
	합계	중국어	영어	합계	중국어	영어	
205	73 (36.60%)	50	23	128 (62.43%)	112	16	4 (1.95%)

<참고 : 『일기』, 242~251쪽.>

구매일은 1917년 1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라고 기록되어 있다. 8개월 동안의 구입도서 목록은 205권으로 책 권수계산에 있어 시리즈는 각각 한 권⁷⁸⁾으로 처리했다. 두 가지가 한 가지로 합본⁷⁹⁾이 된 경우도 있다. 그중에

77) 皮明麻林主編, 앞의 책, 464쪽. “1917년 3월 24일 백언, 중청, 준생과 함께 문화공서림(文化公書林)에 가서 룡도양(凌道揚)석사의 산림(山林)강의를 듣고 왔다.”(『일기』, 54쪽)는 기록이 있다. 이쯤으로 문화공서림이 서점으로 추측가능하나 皮明麻林主編, 『近代武漢城市史』에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또 “1918년 4월 28일 쥘민처(厥民處)에서 『여론(輿論)』을 샀다.(『일기』, 357쪽)”기록도 나온다. 『여론』은 남양출판(南洋出版)에서 나오는 것 이므로 쥘민처도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장소로 추측한다.

78) 『대불정수능엄경(大佛頂首楞嚴經)』 2권, 『유식이십문기술(唯植二十論述記)』 2권, 『참폭잡지(檐曝雜誌)』 2권, 『여마력(女魔力)』 3권, 『소림광기(笑林廣記)』 4권, 『부녀잡지(婦女雜誌)』 第一卷匯編, 『아국만언(俄國萬言)』 2권, 『북사대학강의(北師大學講義)』 4권

79) 『애논해여사전(愛論該女史傳)』 · 『몽태사리여사전(蒙台梭利女史傳)』 이 합본, 『일기』, 245쪽. 몽태사리(蒙台梭利)는 몬테소리교육의 창시자인 몬테소리 박사이다. 몬테소리 교육방법 관련 책은 1909년 『몬테소리 방식(Il metodo della pedagogia scientifica)』 이 처음 출판되었다. 『정신과 위생(精神與衛生)』 · 『신경건전법(神經健全法)』 이 합본. 『일기』, 247쪽.

서 잡지와 신문을 한 항목으로 단행본을 한 항목으로 하였을 때 잡지류는 36.6%이고 단행본은 62.43%이다.

잡지 중에서 정기 구독하는 것은 중국어 2종, 영어 3종으로 총 5종이다.⁸⁰⁾ 정기구독 외 다른 방법으로 구입한 잡지는 7종이다.⁸¹⁾ 구매한 영어 단행본 중 7권을 환선서국에서 구매했다.

당시 아버지는 병환중이고, 학생신분으로 가정까지 이루었던 그는 책을 사는 것이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다. 그가 책을 살 수 있던 것은 증여(贈與)나 자비구입도 있지만 대부분 글을 보내고 받은 고료(稿料)와 고료 대신이었던 서권(書券)덕분이다.⁸²⁾ 『동방(東方)』에 「의무론(義務論)」을 발표하여 고료 10원 받은 것이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다⁸³⁾는 것을 보아 원고를 보내고 고료를 받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다. 또한 1920년대 상해의 숙련 노동자의 일 년 평균 소득이 400원(元), 미숙련 노동자는 200-300원 가량이었다.⁸⁴⁾ 그리고 손목시계가 7원 정도 하는 것⁸⁵⁾을 보면 운대영이 받은 고료는 꽤 큰돈임을 알 수 있다.

운대영이 1917년 동안 받은 고료는 아래 표를 참고하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는 현금 고료 109원, 서권 35.2원으로 결산했다. 하지만 직접 계산해본 결과 현금은 105원이고, 서권은 39.2원이다. 4원으로 맞아 떨어지는

80) 『진보잡지(進步雜誌)』, 『청년진보(青年進步)』, 『Physical Culture』, 『House Wife』, 『Today's House Wife』

81) 『부녀잡지(婦女雜誌)』, 『과학(科學)』, 『동방(東方)』, 『교육잡지(教育雜誌)』, 『중화교육계(中華教育界)』, 『소설해(小說海)』, 『부녀시보(婦女時報)』

82) 서성신기에는 책 구입 가격란에 서권이라 아니라, 출판사 이름과 함께 증(贈)이라 되어 있다. 서창잡지(書窓雜誌)에 서권으로 산 책 목록을 따로 정리해 두었다.(『일기』 213~216) 두 가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83) 人民大出版社 編, 앞의 책, 115쪽.

『동방』 제11권 제4호(1914년 10월 1일)에 「의무론」이 실렸다.

84) 折平外主編, 『民國社會大觀』, 福州: 福建人民出版社, 1991, 529쪽.

85) 하세봉, 「近代中國의 新聞廣告 讀解 - 辛亥革命전후(1905-1919)의 『申報』 廣告-」 『중국사연구』 第19輯, 2002년, 243쪽.

금액은 『교육잡지』 고료 밖에 없기 때문에 운대영이 계산을 잘 못했거나, 혹은 기록을 잘 못한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의 여부에 따라 서권은 다른 잡지사에서는 주지 않고 『동방』의 출판사이자 중국 양대 출판사중 하나였던 상무인서관에서만 주었다는 결론에 내릴 수 있다.

<표-3> 게재된 원고와 고료		
글 제목	게재잡지	원고료
「여권을 논하다(論女權)」	『婦女時報』	13원
「여자자립론(女子自立論)」 *	『婦女時報』	2원
「논노부(論奴仆)」 제3권 제4기(1917.04.05)	『婦女雜誌』	서권 10원
「완동(頑童)」 제3권 제5기 (1917.05.05)*	『婦女雜誌』	4원
「개량사숙추의(改良私塾芻議)」	『青年進歩』	7원
「학교체육의 연구(學校體育之研究)」		
「화평손실과 전쟁손실(和平損失與戰爭損失)」 *	『東方』	서권 8원
「미국원로원의원의 건강(美國元老院議員之健康)」 *	『東方』	서권 4원
「통일적 교육행정을 논하다(論統一的教育行政)」	『教育』	서권 4원
「용독주의의 제창(用讀主義之提唱)」		
「아동놀이시간의 교육(兒童遊戲時間之教育)」 *	『婦女雜誌』	7.5원
「총명한 여랑(聰明之女郎)」 *		
「애정과 지식(愛情與知識)」 *	『婦女雜誌』	6.5원
「낙천생활(樂天生活)」 *		
「수면을 논하다(論睡眠)」 *	『婦女雜誌』	6원
「결혼문제의 연구(結婚問題之研究)」	『東方』	서권 5.2원
「운동의 훈육 방법담(運動之訓育方法談)」 *	『青年進歩』	10원
「장생회(長生會)」 **		
「여자생활문제(女子生活問題)」		
「파괴와 건설(破壞與建設)」	『新青年』	5원

「신앙을 논하다(論信仰)」		
「호외생활(戶外生活)」 *	『婦女雜誌』	10원
「금식치료법(禁食治療法)」 *		
「경험과 지식(經驗與知識)」	『東方』	서권 8원
「아동문제의 해결(兒童問題之解決)」 *	『婦女雜誌』	16원
「아동독서연령의 연구(兒童讀書年齡之研究)」 *		
「영아의 체조(嬰兒之體操)」 *		
「책을 사용하지 않는 교육법의 연구 (不用書教育法之研究)」		
「학문과 직업(學問與職業)」	『青年進步』	18원
「세균신론(細菌新論)」		
글 편수 30편으로 현금은 105원이고, 서권은 39.2원이다.		

<*는 번역글, **는 미상>

〈표-4〉 게재된 원고와 교료							
잡지7종		부녀 시보	부녀 잡지	동방	교육	청년 진보	신청년
투고수	30편	2편 (6.6%)	13편 (43.3%)	4편 (13.3%)	2편 (6.6%)	7편 (23.3%)	4편 (6.6%)
자작 (自作)	14편 (46.6%)	1편	2편	2편	2편	5편	2편
번역 (翻譯)	15편 (50%)	1편	11편	2편	-	1편	-
미상 (未詳)	1편 (3.33%)	-	-	-	-	1편	-

<참고 : 『일기』 219~221, 709~714쪽.>

가장 많은 원고가 실린 잡지는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녀잡지』가 13편, 그리고 『청년진보』 5편, 『동방』 4편이다. 앞서 윤대영이 글을 써서 투고하는 것

은 자립을 위한 방법이었다. 일기에서 방학동안 어떠한 글을 쓰고, 무엇을 번역할 것인 가를 계획했다. 앞에서 잭 런던의 『비포 아담(Before Adam)』을 읽고서 번역을 계획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실현되었는 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자신이 읽은 책들은 원고를 쓰는데 활용하였다. 그는 1917년 『동방』 제14권 제10호에 실린 「경험과 지식(經驗與智識)」에 『The Inner Consciousness』을 인용하였다.⁸⁶⁾ 인용뿐만 아니라, 번역을 하였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표-3>에는 나오지 않지만, 1917년 『신청년』 제3권 제 1호 「물질실재론(物質實在論)」에도 여러 책들이 인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⁸⁷⁾

총 권수	서권으로 산 단행본			증여받은 단행본			구매한 단행본		
	합계	중국어	영어	합계	중국어	영어	합계	중국어	영어
128	68			13			47		
	(53.18%)	65	3	(10.15%)	11	2	(36.71%)	36	11

<참고 : 『일기』, 242~251쪽.>

<표-5>를 보면 서권으로 구입한 도서는 전체 단행본의 53.18%에 해당한다

86) 『懽代英文集』 上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84年, 49쪽.

87) 칸트의 『인심의 고찰(人心之考察 : An Inquiry into the Human Mind)』, 버클리(Berkely)의 『인지의 강요(人智之綱要 : The Principles of Human Knowledge)』, 풀러튼(Fullerton)의 『The Existence of Other Mind』을 인용했다. 『懽代英文集』 上卷, 35,38쪽.

다.

<표-6>을 보면 사전 중에서도 서권으로 산 것이 3권이나 된다.⁸⁸⁾ 이 시기 사전 출판이 활발하다. 신해혁명이전에도 『강희자전(康熙字典)』·『이아(爾雅)』·『광아(廣雅)』 등이 전통적인 사전이나, 백과사전격인 유서(類書)들이 있었으나 사회 변화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사전이 필요하였다. 1915년 중화서국에서 출판된 『중화대사전(中華大字典)』은 『강희자전』이 수록한

47만 글자보다 만여 자 많은 48만자 정도를 수록하고 있었다.⁸⁹⁾ 운대영은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영어잡지 특히 『Physical Culture』를 번역하여 집의 서가에 두었다. 그리고 독일어와 일본어도 공부를 했다.⁹⁰⁾

<표-6> 서성신기 중 사전 수량		
총 권수	구매한 사전	서권으로 산 사전
4	1	3

<참고 : 『일기』, 242~251쪽.>

서성신기에서 눈길을 끄는 책 제목들이 있다. 『일용공예품제조법(日用工藝品製造法)』⁹¹⁾은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니 수입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동생의 회고에도 계모에게 패물을 팔아 양말을 짜는 기계를 사라고 권하였다는 내용이 있고⁹²⁾, 일기에도 책을 사는 비용은

88) 『수진화영자전』(袖珍華英字典) : 포켓용 중영사전이다. 『영화합해사전』(英華合解辭典), 『화학어회』(化學語匯), 『물리학어회』(物理學語匯) 이중에서 『수진화영자전』 외에는 모두 서권으로 구입하였다.

89) 折平外主編, 앞의 책, 832~833쪽.

90) 1918년 2월 14일, 17일, 『일기』 282, 285쪽.

91) 『일기』, 248쪽.

92) 人民大出版社 編, 앞의 책, 227쪽.

스스로 해결하고 싶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다.⁹³⁾

다른 책은 『여자서한문(女子書翰文)』⁹⁴⁾과 『여자재봉수공교과서(女子裁縫手工教科書)』⁹⁵⁾이다. 이 책들은 부인이나 혹은 계모를 위해 산 책이라 추측된다. 부인이 난산으로 인해 사망한 후 그는 일기에서 『부녀잡지』는 부인을 위해 사던 책인데 이제는 자신이 보려고 구입했다고 기록했다.⁹⁶⁾ 부인 심보수는 결혼 후 운대영에게 일기를 쓰라고 권유받고 영어도 공부하였다.⁹⁷⁾ 위의 책은 운대영 부부가 같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부녀잡지』는 여학생과 여교사 그리고 중상층 여성을 대상을 하는 잡지였지만, 당시 젊은 부부가 가정을 어떻게 꾸릴 것인가 하는 목적아래 같이 보는 것은 드문일이 아니었다.⁹⁸⁾

4. 1917년부터 1919년까지의 운대영과 책교류

운대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책을 폐쇄적으로 보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개방을 하였다. <표-7>을 본다면, 그가 증여를 한 곳은 사숙 개량회(私塾改良會) 3권이다.⁹⁹⁾

우리들의 클럽(我們的俱樂部)의 구성원인 진해관(陳海觀)¹⁰⁰⁾이 그에게 1권

93) 1917년 2월 22일 『일기』, 38쪽.

94) 『일기』, 243쪽.

95) 부인은 난산으로 1918년 2월에 사망한다. 『일기』, 244쪽.

96) 1918년 3월 19일 『일기』, 313쪽.

97) 田子淪·任武雄·李良明 共編, 앞의 책, 7쪽.

98) 周鈺琪, 「閱讀與生活: 樞代英의 家庭生活與 『婦女雜誌』之關係」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年, 113, 116, 143쪽.

99) 『공민감(公民鑑)』, 『철학발범(哲學發凡)』, 『복부우지길론리학(腹部宇之吉論理學)』, 『일기』, 251쪽.

100) 진해관(陳海觀) : 해관은 자이고 이름은 진문란(陳文瀾)이다. 운대영이 주도하여 만든 우리들의 클럽(我們的俱樂部) 구성원이고, 중화대학중학부 교원이었다. 후에 일본으로 유학하였으나 태평양전쟁시기 동남아에서 전사했다. 『일기』, 699쪽.

101)을 증여했다. 대여해온 곳은 학교의 영문도서실¹⁰²⁾과 진해관¹⁰³⁾외 두 사람¹⁰⁴⁾이 있다. 이 표에는 없지만 처가에서 가져와서 본 책도 있다.¹⁰⁵⁾

<표-7> 책 교류			
증여 함	증여 받음	대여해온 책	대여 해준 책
3	1	6	22

<참고 : 일기 251~252쪽.>

대여해준 이들은 총 8명으로 가장 많이 빌려간 이들은 친구인 세백언 (洗伯言)¹⁰⁶⁾이 8권¹⁰⁷⁾, 처남인 심광요(沈光耀)¹⁰⁸⁾이 5권¹⁰⁹⁾이다. 나머지 6명¹¹⁰⁾은 대학친구로 보인다.

-
- 101) 『H B Magazine List(期刊目錄)』, 『일기』, 251쪽.
 102) 『Chan tan quan(龔坦寬, 譯音)』, 『관장현형기(官場現形記)』, 『Harper's Magazine(哈潑斯雜誌)』, 『일기』, 251~252쪽.
 103) 『중화도서관목록(中華圖書館目錄)』, 『일기』, 251쪽.
 104) 풍궈명(馮厥明)에게서 『리학구현(理學鉤玄)』을 류봉경(劉鵬卿)에게서 『소크라테스(Socrates : 蘇格拉底)』를 빌렸다. 운대영 일기 부록으로 있는 주요인물소개에는 두 사람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철학 관련인 책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친구일 가능성이 높다. 『일기』, 251~252쪽.
 105) 『증문정공(曾文正公)』을 읽었다. 이 책은 보수(葆秀)의 집에 있던 책이다. 『일기』, 10쪽.
 106) 운대영의 대학동창이자 같이 중학부에서 일을 하였다. 호조사와 이군서사에도 참여하였다. 『일기』, 701쪽.
 107) 『의용일기(宜用日記)』, 『성(誠)』第一·二期, 『진보(進步)』十卷 第三護. 『과학서국목록(科學書局目錄)』, 『신사회사목록(新學會社目錄)』, 『육아와 위생(育兒與衛生)』, 『청년진보(青年進歩)』, 『일기』, 251~252쪽.
 108) 자는 중청(仲淸)운대영의 영향을 받아 호조사, 이군서사, 공존사(共存社)에 중요한 구성원이다. 북벌군이 무한에 왔을 때 운대영의 개인비서였다. 『일기』, 695쪽.
 109) 『전비상책(戰非上策)』, 『자유원리(自由原理)』, 『인군진화론(人群進化論)』, 『전쟁과 진화(戰爭與進化)』, 『세계삼괴물(世界三怪物)』, 『일기』, 251~252쪽.
 110) 장자준(張子俊) : 중화대학부중의 서기원으로 이군서사의 구성원이다. 『조야신담(朝野新談)』, 『부녀시보(婦女時報)』二十期 『일기』, 251, 698쪽.
 유수민(喻壽民) : 자가 수민이고 이름은 진현(進賢)이다. 중화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중화대학 영어교사로 운대영과 같이 일을 한다. 후에 변호사로 활동한다. 『구소설(舊小說)』(甲輯)二冊, (乙輯)六冊, 『최면술독습(催眠術獨習)』, 『일기』, 14, 251, 707쪽.
 여경도(余景陶) : 자가 경도이고 이름은 가국(家菊)이다. 동급생이고 중학부에서 같이 일을 했으며

대여기간을 보자면 잡지나 서목의 경우는 책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없고, 기록에 따르면 돌려받기까지 보름을 넘기는 경우는 없다. 심광요는 운대영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지 빌려간 책들은 대부분 사회과학 서적이다. 빌려온 단행본 5권을 1917년 3월에 빌렸으나 돌려받았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는다. 운대영의 경우도 친구나 영문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반납하지 않은 것 같다. 영문도서관에서 3월에 책을 빌렸으나 반납을 하지 않았으나 4월에 다시 빌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영문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반납하지 않고 친구에게 주는 경우도 있었다.¹¹¹⁾ 이 기록에 따르면 한 책을 세 명이 돌아가며 본 경우가 있는데 그 책이 『최면술독습(催眠術獨習)』이다.

대여목록에 나오는 책들은 1917년에 구입한 책 목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1917년 이전에 책을 구입한 것으로 생각되고, 1917년 이전에는 어떤 책을 읽었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우편으로 다른 이에게 책을 증여하고 증여 받았다.¹¹²⁾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1917년도 일기 말미에 운대영이 따로 정리하였

인사(仁社)와 소년중국학회 구성원이었다. 후에 국가주의파에 중요인사가 된다. 『최면술독습』, 『일기』, 251, 701쪽.

류원룡(劉元龍) : 동급생 『교육신법령(教育新法令)』 六冊, 『논리학필기(論理學筆記)』 『일기』, 251, 706쪽.

양소문(梁少文) : 동급생이고, 호조사, 이군서사와 소년중국학회(少年中國學會)에도 참여했다.

1922년 사회주의청년당광동성단위선전부 주임을 했다. 국민당정부 주미 샌프란시스코총영사를 역임했고 해방 후에는 외교학회에서 일을 했다. 『Blackemar's Sociology(布莱克默的社會學)』, 『일기』, 252, 706쪽.

륙러오(陸勵吾) : 『부녀시보(婦女時報)』 十九期, 『일기』, 252쪽.

111) 『Chan tan quan』 을 양소문에게 주었다. 『일기』, 251쪽.

112) 1917년 2월 6일 이비생(李飛生 : 청화대학 학생으로 운대영과 통신으로 연락)에게 『The Unit System(附白近事)』 를 받았다. 『일기』, 233, 696쪽.

1917년 6월 8일 필기암(畢畿菴 : 신원미상)에게 『상산야록(湘山野泉)』 을 받았다.

1917년 6월 19일 운철초(惲鐵樵 : 민국 초 소설가로 상무인서관에서 문예와 의학을 편집담당)에게서 『청우여사화책(淸于女史畫冊)』 을 받았다. 『일기』, 239, 703쪽.

1917년 7월 18일 운철초에게 『대운산방문초이집(大云山房文初李集)』 및 『언사(言事)』 를 보내 주었다. 『일기』, 229쪽.

던 「거홍록(去鴻泉)」·「래홍록(來鴻泉)」·「서성신기」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이 결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기 속에 나타난 교류목록은 각주로 대신한다.¹¹³⁾

운대영은 독서토론회에도 하였는데, 무슨 책을 읽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찾을 수가 없다.¹¹⁴⁾ 1917년 토론회는 독서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이었다면 1919년 독서토론회는 상호교류의 목적이 강한 토론회로 보인다.

113) 1917년 8월 26일 Price(기독교 선교사로 무한기독교청년회의 여름수양회에서 만남)가 『The meaning of Prayer』와 『증도집(證道集)』을 빌려주었다. 『일기』, 136쪽.

호이곡(胡貽穀 : 신원미상)에게 『청년진보』와 『기독교와 과학(基督教與科學)』을 주었다. 『일기』, 171쪽.

1918년 3월 18일 준생(潛生 : 혹은 潛生, 이름은 왕안원(王安源)으로 운대영의 동급생)이 『실업천설(實業淺設)』이 두 권 보내주었다. 『일기』, 312, 692쪽.

1918년 3월 22일 이문사(伊文思)가 잡지 두 권을 주었다. 준생과 경도에게 한권씩 보냈다. 일기, 316쪽.

1918년 4월 13일 여경도에게 『동방』작년 10,11호를 빌려주었다. 준생에게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를 빌려주었다. 『일기』, 342쪽.

1919년 1월 4일 해관에게 『단방집이(丹方集異)』를 우편으로 보냈다. 『일기』, 454쪽.

1919년 7월23일 양공포(楊恭甫 : 신원미상)에게 『광려유기(巨廬游記)』를 보내주었다. 『일기』, 588쪽.

114) 1917년 11월 3일 소문약(少文約 : 신원미상)과 책읽기 약속, 그는 『중국의 무사도(中國之武士道)』나 『만병자연요법(萬病自然療法)』을 읽는다. 규칙 1. 내가 깨달은 것이나 혹은 의문점, 서로 토론할 점을 준비한다. 2. 중간에 얼마에 관계없이 책을 읽지 않는 것을 허락지 않는다. 3. 내일부터 시작해, 토요일 혹은 일요일에 결과보고를 한다. 4. 마땅히 매일 한두 시간 정도 읽는다. 그 하루를 빼먹으면, 향상(向上)을 위해 하루를 보충한다. 『일기』, 175쪽. 이후에 『일기』에서 기록을 찾을 수 없다.

1919년 11월 2일 이상적인 하명회(夏令會)를 위해 독서회를 한다. 회의 후 새로운 책을 돌려보고, 한 시간은 회원 자신이 좋아하는 책을 연구 한다. 앞 서 말한 것은 회의에서 준비하고 뒤에 말한 것은 회원 자신이 준비한다. 독서회 의의는 지식을 교환 혹은 또 다른 놀이다. 구성원은 우리의 친구 및 친구의 친구로 하고 대개 서로 돕고 노력하고 사상개조와 품격 개조가 주이다. 『일기』, 652쪽.

II. 운대영의 독서생활

1. 운대영의 독서성향

이택후는 『중국현대사상사론』에서 신문화운동을 격렬하게 전통을 부정하고 서구화를 추구하는 계몽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나 5·4사건이라는 사회정치적 위기에 맞닥뜨리고는 구망(求亡)이 계몽을 압도하기 시작했다고 평했다. 이러한 논점은 운대영의 독서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운대영은 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독서를 많이 하였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다. 그는 소설과 교육 그리고 시사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경향은 오사사건을 중심으로 차이를 보인다.

5·4사건 전인 1917~18년에는 그는 건강관리¹¹⁵⁾와 생식의학(生殖醫學)¹¹⁶⁾에 대해 관심을 보인다. 노하구에서 돌아온 뒤 어머니가 사망하고 아버지가 병중이므로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럽다. 영문 기사를 번역하여 서가에 두고, 『부녀잡지』에도 투고하였다.¹¹⁷⁾ 또한 책을 주위사람들에게 권하기도 하였다.

『위생면학법(衛生勉學法)』은 매우 실용적이다. 중청(仲淸)과 빙삼(聘三)¹¹⁸⁾, 성장(成章)¹¹⁹⁾에게 권했다. 그리고 정독할 것이 아니라

115) 1917년 『만병치료요법(萬病自然療法)』, 『심신조화법(身心造化法)』, 『위생면학법(衛生勉學法)』, 『약서(藥書)』

1918년 『개인위생편(個人衛生篇)』, 『위생신의(衛生新義)』

116) 생식의학서적은 산부인과 관련 서적과 유사하다. 하지만 산부인과 관련 서적이라 지칭하기에는 당시 상황을 전하기에는 적절히 않은 듯 하여 부자연스럽지만 생식의학이라 칭한다.

「Can mothers retain their figure?」, 「婦人之弱」, 「Early Marriage, a Eugenic Necessity(早婚在優生學上的必要性)」, 「美國人早婚之提唱」, 「衛生哺乳法」

117) 「금식치료법(禁食治療法)」을 번역해 서가에 두었다. 1917년 8월 1일 『일기』, 124쪽.

118) 이름은 탕제천(湯濟川)이고 빙삼 혹은 지길(之吉)이라고 하기도 한다. 중화대학 중학부 삼반

그저 하루 힐끗 보라 하였다.¹²⁰⁾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위생과 생식의학에 대한 관심은 청말 부터 시작되었다. 청말 서구인들은 중국인의 신체는 쇠약하고 종족(種族)이 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인식을 엄복, 양계초, 담사동 등 중국인들이 받아들였고, ‘약하다’와 ‘병자’라는 인식은 자기 타자화(self orientalizing) 되어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자강(自強)하는 길이라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황인종이 위생개선과 종족개량에 힘을 쓰면 백인을 능가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것은 전통의 화이관념(華夷觀念)과 연결되어 있었다. 약함의 부정은 자신의 야만성 부인이기도 했고, 피식민지인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와 같은 처지로 인식되고 싶지 않다는 의지표현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돌이켜볼 여유도 없이 수입된 서양의 우생학(優生學)과 중국 전통지식이 뒤섞여 종족주의를 형성하고, 다시 강한 신체, 강한 종족에 대한 열망을 강화했다.¹²¹⁾

청말 엘리트들은 강한 국가와 강한 신체를 갖기 위한 방법으로 “위생”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위생개선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위생개선은 서양과 일본이 부강해지는 과정에서 총결된 경험이며, 개인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¹²²⁾ 건강의 필요성에 대해 『신청년』이 “국민의 강약은 소수인의 뛰어난 능력이 아니라 다수인의 건강한 신체에 의지한다고 주장할 정도였다.¹²³⁾

학생이었고, 호조사, 보인사(輔仁社) 및 이군서사에 참여했다. 1919년 무한 “육일(六一)”학생 수업거부 투쟁에 참여했다. 1926년 이대조가 이끈 “삼·일팔(三·一八)”투쟁에 참가했다. 북경대 졸업이후에는 교육계에서 활동했다. 『일기』, 693쪽.

119) 정흥환(鄭興煥)은 성장 혹은 인수(人鬻)라 한다. 중화대학 중학부 사반학생이었고, 호조사, 보인사 및 이군서사에 참여했다. 『일기』, 701쪽.

120) 중청은 처남 심광요이다. 1917년 12월 15일 『일기』, 201쪽.

121) 張仲民, 「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 『學術月刊』 第40卷 第4期, 2008年, 141쪽.

122) 張仲民, 「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 『學術月刊』 第40卷 第4期, 2008年, 142쪽.

123) 임상범, 「民'에서 '國民'으로 -5·4運動時期 北京地域을 中心으로」 『中國現代史研究』 第2

1910년대에 사회전반에서 문명(文明)에 대해 이야기했다.¹²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문명에 위생의 개선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위생 개선은 국가 존망(存亡)과 연결되어 비위생적인 생활습관은 미신과 같은 종류로 치부되었다.¹²⁵⁾

이러한 강한 신체와 위생 개선에 대한 열망은 출판시장에도 전해졌다. 관련 서적들은 1930년까지 지속적으로 출판되었다.¹²⁶⁾ 뿐만 아니라 강한 신체와 위생 개선에 대한 열망은 여성의 지위변화에도 영향을 끼쳤다. 여성이 공부를 하는 것을 장려하고, 몸에 대해 관심을 갖도록 유도했다.¹²⁷⁾ 운대영이 『부녀잡지』에 투고한 글들이 건강관리와 육아에 집중되는 것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신문화운동에 중요한 잡지는 개인의 해방과 백화문 운동을 제창한 『신청년(新靑年)』이다. 그렇다면 운대영은 『신청년』을 얼마나 봤을까. 오사사건 전에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건이후에 더 자세히 읽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이 관심 있는 기사는 일기에 따로 제목을 기록해 두었지만 『신청년』은 1919년에야 그렇게 기록한다. 1917, 1918년에는 각각 두 번을 언급한다.¹²⁸⁾ 반면 1919년에는 일기에서 11번을 언급하고, 기사제목도 기록하였다.¹²⁹⁾ 물론 1918년은 일기의 기록이 부실하므로 수치를 절대적으로

輯, 1996년, 64쪽.

124) 임상범, 앞의 글, 68쪽.

125) 張仲民, 「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 『學術月刊』 第40卷 第4期, 2008年, 142쪽.

126) 張仲民, 「出版與文化政治:清末出版的生殖醫學書籍及其讀者」 『學術月刊』 第41卷 第1期, 2009年, 136쪽.

127) 張仲民, 「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 『學術月刊』 第40卷 4月號, 145쪽.

128) 1917년 9월 17일 군익서사에 엽서를 보내 『신청년』을 보내 달라 부탁했다. 『일기』, 149쪽.

1917년 9월 27일 『신청년』을 읽고 백화문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일기』, 153쪽.

1917년 서성신기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서성신기 기록은 8월까지지만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1918년 2월 20일 『신청년』을 두 편을 읽었다. 『일기』, 287쪽.

1918년 2월 23일 『신청년』을 수편을 읽었다. 『일기』, 291쪽.

129) 1919년 2월 22일 『신청년』을 읽다. 『일기』, 492쪽.

로 여기는 수는 없다. 그리고 1917년 이전에도 『신청년』의 존재와 성향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같다. 그의 글 「물질실재론(物質實在論)」이 『신청년』 제 3권 제 1호(1917년 3월 1일 발행)에 실려 있다. 또한 그해 6월에 자신이 쓴 두 편의 글을 보냈다.¹³⁰⁾

바진(巴金)의 소설 『가(家)』를 살펴보면 5·4사건 이후 『신청년』을 열심히 보았던 이들이 있었던 듯하다.

그 후 2년이 지나 ‘5·4운동’이 폭발했다. 신문 지상에 대대적으로 게재되는 격하고 날카로운 비판 기사들은 그의 잊혀진 청춘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지방 신문에 전재(轉載)되는 북경 소식과 상해의 ‘6·3운동’ 기사들을 두 동생과 함께 탐욕스럽게 읽었다. 또 『신청년』과 『주간평론』 두세 권을 사서 읽었다. 거기에 씌어진 한 자 한 자는 각신(覺新)형제들의 열정을 불꽃처럼 지펴주었다. 그 신선한 토론과 열렬한 글들은 불가항력적으로 그들 3형제를 압도했다. 그들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거기에 곧 설복되었다. 그래서 『신청년』·『신사조』·『매주평론』·『주간평론』·『소년중국』 등

1919년 4월 24일 『신청년』을 읽다. 『일기』, 528쪽.

1919년 7월 4일 『신청년』을 읽다. 『일기』, 573쪽.

1919년 7월 6일 『신청년』 수 편을 읽다. 『일기』, 576쪽.

1919년 7월 9일 『신청년』을 읽다. 「희극개량을 논하다.(論戲劇改良)」 『일기』, 584쪽.

1919년 7월 12일 『신청년』을 읽다. 「구사상과 국체문제(舊思想與國體問題)」·「역사의 문학관 개론(歷史的文學觀念論)」·「美國的婦人」

1919년 7월 13일 『신청년』을 읽다. 「시와 소설 정신상의 혁신(詩與小說精神上之革新)」·「楊奴拉.....故事」·「楊尼斯...故事」 『일기』, 585쪽.

1919년 7월 16일 『신청년』을 읽다. 「추장(酋長)」·「완강견문록(皖江見聞記)」 『일기』, 586쪽.

1919년 9월 18일 『신청년』을 읽다. 『일기』, 627쪽.

1919년 11월 21일 『신청년』을 읽다. 『일기』, 663쪽.

130) 「과괴와 건설(破壞與建設)」, 「신앙을 논하다(論信仰)」을 6월 20일에 완성했다. 두 편으로 양(洋) 5원(元)을 받았다.

이 잇달아 그들의 손에 쥐어졌다. 『신청년』과 『신사조』 두 잡지는 새로 출판된 것이건 이전에 출판된 것이건 간에 살수만 있으면 다 샀고, 심지어 『신청년』의 전신인 『청년잡지』까지도 높은 점원이 현책 무더기를 뒤져 그들에게 보내주었다. 131)

5·4사건 이후 『신청년』과 『신사조』 등 잡지에 압도된 각신 형제처럼 운대영 또한 자신의 성향이 바뀌었음을 고백했다.

『신보』는 진보적이고, 『시보(時報)』를 뛰어넘었다. 향포(香浦)는¹³²⁾ ‘중국인들은 수구적(守舊的)이다’ 했다. 예전에는 『시보』와 『동방잡지』가 가장 좋다고 여겼다. 현재에도 이런 말이 있는데, 이는 듣는 귀만 있고 보는 눈은 없는 것이다. 안타깝다. 133)

나는 『신청년』과 『신조(新潮)』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평등·박애·호조(互助)·노동의 복음을 전파한다. 더욱이 나는 그들의 회무보고(會務報告)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들은 몸소 실천하여 힘쓰기 때문이다. 134)

131) 바진(巴金), 『가』 1권, 서울 : 황소자리, 2006년, 73~74쪽.

132) 이름은 임육란(林毓蘭)이고, 향포 외에 상포(湘浦), 향불(向拂), 임근(林根)을 사용하며 통칭 임육남(林育南)이다. 호조사, 인사, 이군서사, 공존사(共存社)의 구성원이었다. 운대영의 절친한 동지이며, 1921년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고, 중국노동조합서기부무한분부주임(中國勞動組合書記部武漢分部主任)을 맡아 “이칠(二七)”대 파업을 이끌었다. 후에 중앙서기 및 『중국청년』 편집을 담당했다. 1927년 중화전국총공회집행위원(中華全國總工會執行委員)겸 비서장(秘書長)이 되었다. 1931년 2월 7일에 국민당에 체포, 살해되었다. 『일기』, 702쪽. 陳玉堂, 『中國近現代人物名號大辭典』, 杭州 : 浙江古籍出版社, 1993년, 561쪽.

133) 1919년 6월 25일, 『일기』, 568쪽.

134) 1919년 9월 9일, 『일기』, 624쪽.

『시보』는 1907년 적보현(狄葆賢)이 창간한 진보적 정론신문이고, 주필 진경한(陳景韓)의 정곡을 지르는 단평(短評)이 특히 유명해서 창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행부수가 상업신문 『신보』와 『신문보(新聞報)』에 비해 크게 뒤지지 않았다.¹³⁵⁾ 1917년에 운대영은 『시보』를 보았는데 1919년 전후로 해서 『신보』로 옮겨왔다.

『신보』의 장점은 뉴스전달의 신속과 정확성이라 할 수 있다. 『신보』경영자 사랑재(史量才)는 대중지의 기본인 뉴스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뉴스망을 확충하고, 북경에 특파원을 주재시켜 국내외 주요 뉴스들을 전신(電信)을 통해 입수하여 신속히 보도했다. 그러자 발행부수가 날로 증가했고, 5·4사건 이후 더욱 증가했다. 신문화운동, 노동자들의 파업, 상인들의 철시 등 주요 사건들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이러한 사건들에 관한 사람들의 뉴스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보』는 더 나아가 여러 섹션을 추가하여 뉴스 수요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영리에 집중한 나머지 5·4사건과 5·30사건 이후로 중국인이 발행하는 신문 대부분이 일본과 영국광고 게재를 거부하였으나 『신보』는 일본과 영국 광고를 게재해서 학생들의 규탄을 받기도 했다.¹³⁶⁾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신보』가 『신청년』처럼 정치·문화적으로 앞선 생각을 하는 진보적(進步的)이라는 것보다는 다른 중국일간지보다 앞서 신속한 뉴스전달을 중요시하여 시행하였으므로 선진적(先進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진독수(陳獨秀)와 이대조(李大釗)가 창간한 공산주의 계통 잡지 『매주평론(每週評論)』¹³⁷⁾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그 전에는 열심히 보던 『동방잡지』가 시들해졌다. 3년간의 보던 잡지의 변화는 <표-8>을 보면 더욱 알

135)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년, 203쪽.

136) 신인섭, 『中國의 廣告』, 서울 : 나남, 1991년, 56쪽.

137) 1919년 1월 22일·3월 16일·5월 22일, 468, 504, 548쪽.

수 있다.

<표-8> 잡지 목록	
1917년 (19종)	『東方』 『新青年』 『青年進步』 (일기 3년 동안 언급) 『婦女雜誌』 (1917년과 1918년에만 언급) 『小說畫報』 『教育』 『科學』 (1917년과 1919년에만 언급) 『婦女時報』 『小說新報』 『小說海』 『進步』 『中華教育界』 『言二雜誌』 『時報』 『House Wife』 『Today's House Wife』 『Educational Journey』 『Physical Culture』 『Adanced Thought』
1918년 (4종)	『東方』 『新青年』 『青年進步』 (일기 3년 동안 언급) 『婦女雜誌』 (1917년과 1918년에만 언급)
1919년 (27종)	『東方』 『新青年』 『青年進步』 (일기 3년 동안 언급) 『小說畫報』 『教育雜誌』 『科學』 (1917년과 1919년에만 언급) 『每週評論』 『南京高師』 『北京高師週刊』 『武昌高師』 『新潮』 『群鬼』 『新聲』 『建設』 『教育週報』 『教育與職業』 『學生雜誌』 『少年雜誌』 『解放與改造』 『黑潮』 『申報』 『漢口日報』 『來復報』 『時事新報』 『Peking Leader』 『Murche's science Reader』 『 Popular Monthly』

<참고 : 운대영이 일기에 등장한 횡수에 상관없이 정리했다. 자신이 참여하거나 근무하던 학교에서 발간하던 학보는 『광화(光華)』는 제외했다.>

오사시기는 잡지의 시대라 할 수 있다. 잡지 발행이 왕성하여 단행본 출판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정도였다.¹³⁸⁾ 운대영의 구입한 도서 중 36.6%가

138) 王寄生, 앞의 글, 48쪽.

잡지인 것도 이것을 뒷받침한다. 신문과 잡지 그리고 단행본의 성격을 비교한다면 신문과 단행본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 잡지라 할 수 있다. 신문은 발

빠르게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장점이라면 단행본은 다루려는 주제에 대해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잡지의 약점은 신문보다는 민첩할 수 없고, 단행본보다는 거시적일 수는 없다. 이것을 뒤집어 생각한다면 잡지는 신문보다는 깊게 파고들 수 있고, 단행본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민감할 수 있다. 청 말의 언론의 특징은 정론(政論)이다. 하지만 신해혁명이후 정론보다는 발 빠른 사건보도에 중점을 두는 『신보』와 『신문보』가 많은 발행부수를 자랑한다. 신문이 본래의 기능인 뉴스전달에 치중하기 시작했고, 정론의 기능이 잡지로 옮겨온 것이 아닐까. 이 당시 사람들이 열광했던 새로운 지식들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기에는 단행본보다는 잡지가 출판주기도 짧았다. 이러한 점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요구와 맞아떨어졌을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내용으로 단행본을 낼 수 있는 작가가 몇 명 없었다.¹³⁹⁾ 오사시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매체가 잡지라 할 수 있다.

조가벽은 1922년 국어 선생님에게서 『신청년』과 『학생』의 과월호를 받아 읽어보았다 회고하였다.¹⁴⁰⁾ 소설 『가』와 조가벽의 회고를 통해 잡지는 출판이후에도 폐지신세가 되지 않고,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에 관심이 많던 운대영이지만 사건이후 『망국비사(亡國稗史)』·『한국통사(韓國痛史)』·『망국노지일기(亡國奴之日記)』·『세계망국패사(世界亡國稗史)』를 읽었다.¹⁴¹⁾ 불안한 시국으로 인한 답답한 마음을 이러한 책

139) 王寄生, 앞의 글, 48쪽.

140) 趙家壁, 앞의 글, 1쪽.

으로 통해 해소를 하려했던 것 같다. 『세계망국패사』 중 고려가 망하는 정황을 읽었는데, 지금의 우리의 처지와 같으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평했다. 또한 책 제목을 통해 그 당시 일본의 식민지이었던 한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2. 책교류 활성화를 위한 노력

도서관은 국내 혹은 국외에서 출판된 다양한 서적들을 수집하여 보존 하는 것과 신원이 확인되는 등과 같은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이들에게 개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오사시기 이전의 도서관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개방을 하게 되면 회수(回收)가 이루어 지지 않아 책의 보존이 힘들어졌다. 책의 보존을 위해 개방을 하지 않게 되면 책은 지식을 전달한다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명·청대 많은 장서량은 물론이고, 진귀본 다량 소유로 유명했던 천일각은 엄격하게 도서에 접근하는 것을 막아 그 명성을 누릴 수 있었다.¹⁴²⁾ 책을 개방하지 않은 것을 보존을 위한 것이 크지만, 이에 대해 맥더모트(Mcdermott)는 희귀한 장서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서 좋은 답안을 제출하여 출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였기에 개방을 하지 않은 면도 있을 것이라 평했다.¹⁴³⁾

무한의 근대적인 도서관인 호북성립도서관은 1904년에 무창 난릉가(蘭陵街)에 설립되어 그해 7월 공공에 개방했다. 하지만 1911년 9월 신해혁명이 일어난 뒤 혁명군이 도서관을 군수품 창고로 이용하여서 책들이 소실되어 유

141) 1919년 8월 14일 『망국비사』·『망국노지일기』를 읽었다. 『일기』, 604쪽.

1919년 8월 27일 『한국통사』를 읽었다. 『일기』, 614쪽.

1919년 9월 27일 『망국노지일기』는 길에서 사서 봤는데 큰 감동을 받았다. 『일기』, 634쪽.

142) 명대 1511-66년에 범함(范欽)이 설립했다. 『사고전서』를 만들 때 진귀본 600여종을 헌납해 96종이 『사고전서』에 수록되었고, 370여 종은 목록에 실렸다. 남태우, 『도서관의 신 헤르메스를 찾아서』 서울 : 창조문화, 2005년, 245쪽.

143) 周紹明(Joseph P. Mcdermott), 앞의 책, 129쪽.

명무실해 졌다. 1920년에야 되어서야 다시 도서관을 재건하기 시작했다.¹⁴⁴⁾ 또한 중화대학도 도서관이 없었다.¹⁴⁵⁾ 오사시기의 무한은 도서관이 유명무실한 도시였다. 운대영은 도서관이 필요성을 알았고, 그 필요성을 중국인의 학업 능력에서 찾았다. 서양에서 유학하는 중국학생들은 학과성적은 좋으나, 서양인들을 따라잡지는 못한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학과공부에만 치중하고 학과공부와는 상관없는 책을 읽지 않기 때문이고,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¹⁴⁶⁾ 그리고 자신이 계지(啓智)도서실을 운영하면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대해 일기에 다시 기록했다.

도서관은 문화 전달에 이로운 그릇이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각종 지식 계발에 관한 것, 사상을 계발하는 책을 진열할 수 있고, 읽는 이들에게 날로 달로 스며들어, 자연히 점차 변화한다. 본교의 계지도서관은 큰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은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생략) 중국에 많은 회관(會館)이 있는데 술을 마시고 노는 장소로 쓰이고 있다. 이것을 도서관으로 개조했으면 한다. ¹⁴⁷⁾

운대영은 교육의 힘을 알고 있었고, 교육을 하는 방법으로 도서관에 주목했다. 교육의 힘을 중시하는 것은 공산당 활동 이후로도 지속되어 암살과 군사운동보다는 선전과 농민을 교육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청년단 중앙 결의에까지 반영되었다.¹⁴⁸⁾

그는 운영계획 그리고 도서목록을 계획했다.¹⁴⁹⁾ 도서관의 운영방법은 현재

144) 楊宝華·韓德昌編, 『中國省市圖書館概況』, 北京: 書目文獻出版社, 1985年, 320쪽.

145) 人民大出版社編, 앞의 책, 166쪽.

146) 1918년 5월 31일, 『일기』, 392쪽.

147) 1919년 11월 15일, 『일기』, 660쪽.

148) 정문상, 앞의 글, 215~217쪽. 운대영의 혁명관과 학생운동론의 자세한 내용은 앞의 논문 참고.

의 운영방법과 유사하다.¹⁵⁰⁾ 또한 대부분의 서적은 자신의 서적으로 꾸렸다¹⁵¹⁾. 1919년 7월에는 계지도서실이 책 구입을 위한 수입원을 만들고, 책 대출을 확대하려 한다.

<표 -9> 계지도서실 서적 판매목록
『신청년』 · 『신조』 · 『신교육』 · 『신중국』 · 『소년중국』 · 『신육조(新育潮)』 · 『학생(學生)』 · 『매주평론』 · 『구국일보(救國日報)』

<참고 : 『일기』, 590쪽.>

그는 책을 할인된 가격을 구해 1%의 이윤을 붙여 판매하려 했다. 예를 들어 『신보』를 30% 할인된 2각 1분에 구입한다면 팔 때는 2각 4분으로 팔려고 했다. 판매이윤으로는 도서실 책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적립했다. 책은 학교 밖에서도 서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조건은 횃수에 제한을 두는 것과 도서실관계자에게 신원이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⁵²⁾ 계지도서에서 책 판매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는 알 수 없지만 일기에 판매성과를 기록해 두었고, 이것은 <표-10>으로 확인할 수 있다. 판매한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기는 힘들지만 판매율은 50~60%정도였다. 『소년중국』이 월간이니 최소 2달 동안 팔았을 것이다.

149) 운대영은 1918년 2월 16일에 가족 도서실을 만들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고, 학교도서실에 대한 계획은 그해 5월 6일에 기록했다. 16일에는 상무인서관과 중화서국에 편지를 보내 할인이나 기증을 요청했다. 『일기』, 284, 365, 377쪽.

갖추려한 도서목록 : 동화, 아동교육화, 『소년총서』 · 『소년잡지』 · 『간도식자(看圖識字)』, 『소소설(小小說)』 · 『중화동자계(中華童子界)』 · 『중화동화(中華童話)』 · 『상식담화(常識談話)』, 『이솝우화(伊索寓言)』 · 『동방』 · 『북경대학월간』 · 『實業月刊』 · 『신교육』 · 『신청년』 · 『미술』 · 『호북성 지리지』 · 『학생잡지』 · 『영문잡지』 · 『부녀잡지』 · 『威爾遜和議演說』, 『일기』, 375, 376, 506, 637쪽.

150) 1919년 6월 1일 6월 17일 1.모든 책은 대중을 위해 공개한다. 2.교원회의실을 도서관으로 하고, 매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열람할 수 있게 한다. 3.대출을 가능하게 한다. 4.각 출판사의 서목을 준비하여 책을 찾기 쉽게 한다. 『일기』, 393쪽.

151) 人民大出版社 編, 앞의 책, 168쪽.

152) 『일기』, 590쪽.

책제목	주문수량	판매량	판매율
『소년중국』 4기	50	30	60%
『소년중국』 5기	100	51	51%
호적 단편소설	40	25	62%

<참고 : 1919년 12월 16일 『일기』 676쪽.>

운대영이 서적을 판매할 당시 계지도서실에서 책을 판매했던 경험은 이군서사(利群書社) 활동에도 도움을 주었다. 이군서사 활동은 당시 유행했던 공독주의(工讀主義)와 관련이 있다. 그는 단체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책을 판매함으로써 마련하려고 하였다. 1919년 12월 22일 무렵 계획한 것으로 보이는 데 차별성을 가지기 위해 무한에서 구하기 힘든 서적과 신문 그리고 공산주의 서적을 판매할 계획을 세웠다.¹⁵³⁾

『무한성기평론(武漢星期評論)』 · 『독수문존(獨秀文存)』 · 『호적문존(胡適文存)』 · 『오우문존(吳虞文存)』 · 『창시집(嘗試集)』 · 『삼엽집(三葉集)』 · 『문예부흥사(文藝復興史)』 · 『전후의 세계와 중국(戰後之世界與中國)』 · 『신군론(新軍論)』 · 『요가철학(瑜伽哲學)』 · 『공산당(共產黨)』 ·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 등.
--

< 『무한성기평론(武漢星期評論)』 은 이군서사가 발행하던 간행물이고, 『공산당(共產黨)』 · 『공산당선언(共產黨宣言)』 이 적발 시 몰수되었다. 참고 : 人民大出版社編, 『回憶惲代英』, 北京: 人民大出版社, 1982年, 173쪽.>

판매는 1920년 2월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청년들에게는 책을 사

153) 『일기』, 678쪽.

지 않아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¹⁵⁴⁾ 공산주의 서적은 금서로 발견 시 몰수당했다. 이러한 책들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우편으로 주문하는데 받는 주소를 무한의 우체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 조계지 우체국으로 하여 받았다. 무한 조계지 우체국은 검열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¹⁵⁵⁾ 그리고 운대영은 계지도서실에서 서적을 판매할 때부터 위탁받아 서적을 판매하기도 했다¹⁵⁶⁾. 위탁받은 서적 중에는 판매금지 도서도 있었다.¹⁵⁷⁾ 운대영은 1922년 봄 무렵 공산당에 입당하였고, 그는 1919년 9월 9일 일기에서 자신이 아나키스트에서 공산주의로 전환했다고 기록했다. 확실한 것은 이미 이 무렵에는 운대영은 『신청년』에 실린 글 외의 공산주의 사상을 접했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 장사(長沙)에 있던 모택동도 책판매를 하였다. 재밌는 점은 운대영의 이군서사 활동은 이윤을 내지 못해 접어야 했으나 모택동은 성공적이었다.¹⁵⁸⁾ 잡지 『신청년』을 비롯하여 버트런드 러셀, 호적, 크로포트킨 등의 저작을 판매하였는데 운대영이 판매한 종류와 큰 차이는 없는데 투자금의 30%가 넘는 수익을 얻었다 한다.¹⁵⁹⁾

154) 人民大出版社編, 앞의 책, 134쪽.

155) 人民大出版社編, 앞의 책, 173쪽. 소포의 경우 중국은 집배원이 직접 배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이 어느 우체국으로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으면 직접 그 우체국으로 가서 수령한다.

156) 1919년 10월 24일 : 류범상(劉范祥)이 책 두 권을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파리중화인자국에서 『旅歐教育運動』 50권을 보내왔다. 다시 50권을 보내 달라 요청하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매 책 당 우표로 2.5블랑이다. 이 책은 근검공학회 기원 및 근검공학 방법에 대해 쓰고 있다. 다 팔지 못할 경우 일 년 반 후 그에게 반환을 한다. 『일기』, 648쪽.

157) 1920년 상반기에 호북인민들은 독군(督軍) 왕점원(王占元) 퇴출운동을 벌였다. 외지에서 출판된 왕점원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신호북(新湖北)』을 국민당원 장지본(張知本)이 무한에 들여왔다. 그는 프랑스 조계지 여관에 숨어 이군서사에 판매를 부탁했다. 한구에서 목재 운반선을 타고 강을 건너 보따리 속에 책을 숨겨서 각자 거리를 유지하며 무장 성문을 통과하여 들여왔다. 이로 인해 호북성 당국은 운대영을 “가장 위험한 적인(最危險的敵人)”이라 칭했다. 人民大出版社編, 앞의 책, 173쪽.

158) 『利群書社』 『五四時期的社團』 1, 北京: 生活·讀書·新知 三聯書店, 1979년, 130쪽.

159) 조너선 D. 스펜스, 남경태 옮김, 『무질서의 지배자 마오쩌둥』, 과주: 푸른숲, 2003년, 76쪽.

결론

오사신문화시기는 격렬한 변화의 시기로, 사회·문화 전반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운대영의 일기를 통해 이전과 다른 독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쇄기술, 서적판매업의 조직, 교육은 이전과 다른 독서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책의 내용과 출판주기도 달라지고 있었다.

서양과의 접촉으로 새로운 지식들이 유입되고, 중국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식들이 필요하다고 여겼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구미과 일본서적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이 거의 모든영역에서 증가했다. 그 뿐 아니라 수많은 잡지와 산문이 발행되고 있었다. 잡지 발행량은 오사신문화시기에 그 발행량은 증가했다. 이시기 잡지가 증가한 것은 당시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합한 매체였기 때문이었다.

운대영은 발간되는 책에 대한 정보를 전통적인 방법인 서목과 새로운 전달 방법인 광고를 통해 접하고 있었다. 하지만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광고보다는 서목이 더 적합하여 서목을 통한 서적 정보 입수가 많았다.

그는 서점이 있는 도시인 무한에서 거주하였으나, 우편으로 구입하는 책이 많았다. 우편 구입은 중국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영어책도 구입하였다. 운대영이 책을 구입하는 재원은 자신이 글을 써서 받은 원고료였다. 자신이 구입한 책을 주위 사람들과 돌려보았고 부인과 같은 잡지를 보기도 하였다.

운대영이 소설, 교육, 시사, 위생 등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나 오사사건을 전후로 변화를 보인다. 즐겨읽는 잡지가 『동방』과 『시보』에서 『신청년』과 『신보』가 되었고 망국에 관한 역사책을 많이 보았다. 오사사건으로

인한 위기감이 독서에 까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운대영은 교육이 가지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교육의 일환으로 도서실을 만들고 책을 판매했다. 그가 도서실을 운영하는 것은 당시 무한에서는 공공도서관이 제 구실을 못했던 것에도 연관이 있다. 그가 판매한 책은 당시 지적 흐름을 따라 진보적이라 평가 받던 책들이 많았고, 금서로 지정된 공산주의 서적이나 정치 비판 서적도 있었다.

운대영의 독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변화하고 있었고, 그 변화에는 구망이라는 목적과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독서역사의 최종단계는 책을 읽고서 어떻게 활용했는가 하는 점이다. 운대영의 문집을 통해 『The Inner Consciousness』를 「경험과 지식」에 인용한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는 앞으로 필자가 가져가야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1. 자료

-일기-

『運代英日記』, 北京 : 中共中央黨校出版社, 1981.

-회고록-

人民大出版社 編, 『回憶惲代英』, 北京: 人民大出版社, 1982.

趙家壁, 『編輯憶舊』, 北京 : 三聯書店, 2007.

-문집-

『惲代英文集』 上卷, 北京 : 人民出版社, 1984.

2. 연구저서

-국문-

강명관, 『책벌레들 조선을 만들다』, 서울 : 푸른역사, 2007.

차배근, 『중국근대언론발달사1815~1945』,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문화

- 원, 2008.
- 육영수, 『책과 독서의 문화사』, 서울 : 책세상, 2010.
- 남태우, 『도서관의 신 헤르메스를 찾아서』, 서울 : 창조문화, 2005.
- 신인섭, 『中國의 廣告』, 서울 : 나남, 1991.
- 황지영, 『명칭출판과 조선전파』, 서울 : 시간의 물레, 2012
- 이택후(李澤厚), 김형중 옮김, 『중국근대사상사론』, 파주 : 한길출판사, 2005.
- 바진(巴金), 박난영 옮김 『가』 1권, 서울 : 황소자리, 2006.
- 나수보(羅樹寶), 조현주 옮김, 『중국 책의 역사』, 서울 : 다른생각, 2008.
- 왕병흠(王秉欽), 김혜림 · 이지혜 · 김효정 · 강경이 · 김남이 옮김, 『중국 번역 사상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11.
- 존 킹 페어뱅크 · 멀 골드만, 김형중 · 신성곤 옮김, 『신중국사』, 서울 : 까치, 2005.
- 조너선 D. 스펜스, 남경태 옮김, 『무질서의 지배자 마오쩌둥』, 파주 : 푸른숲, 2003.
- 리디아 리우, 민정기 옮김, 『언어횡단적 실천』, 서울 : 소명출판, 2005.
- 도미야 이타루(富谷至), 임병덕 옮김,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파주 : 사계절출판사, 2005.
- 나카스나 아키노리(中砂明德), 강길중 · 김지영 · 장원철 옮김, 『우아함의 탄생-중국 강남 문화사』, 서울 : 민음사, 2009.

—중문—

田子淪 · 任武雄 · 李良明 共編, 『惲代英傳記』, 湖北省 : 湖北人民出版社, 1984.

張羽 · 鐵鳳, 『惲代英傳』 北京 : 中國青年出版社, 1995.

宋軍, 『申報的興衰』 上海 :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6.

忻平外主編, 『民國社會大觀』, 福州 : 福建人民出版社, 1991.

皮明麻林主編, 『近代武漢城市史』, 北京 :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3.

楊宝華 · 韓德昌編, 『中國省市圖書館概況』, 北京 : 書目文獻出版社, 1985

黃鎮偉, 『中國編輯出版社』, 蘇州 : 蘇州大學出版社, 2003.

陳玉堂, 『中國近現代人物名號大辭典』, 杭州 : 浙江古籍出版社, 1993.

周紹明(Joseph P. Mcdermott), 何朝暉 譯, 『書籍的社會史』, 北京 : 北京大學, 2009.

中共黨史人物研究會 編; 胡華 主編, 『中共黨史人物傳』 第五卷, 西安: 陝西人民出版社, 1981.

3. 연구논문

—국문—

변광철(潘光哲), 「서구 당대 사학의 동향과 近代中國歷史圖의 ‘심층묘사’— 근대 중국의 독서, 출판과 문화’에 대한 타이완의 연구 소개」 『大

- 東文化研究』 第65輯, 2009.
- 하세봉, 「近代中國의 新聞廣告 讀解-신해혁명 전후(1905~1919)의 『申報』 광고-」 『中國史研究』 第19輯, 2002.
- 정문상, 「國民革命期(1923~1927) 惲代英의 革命觀과 學生運動論」 『歷史學報』, 第 134·135合輯, 1992.
- 최용철, 「명청시대 금서소설과 정치 이데올로기」 『중국인문학회 2003.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 오순방, 「19세기 동아시아의 최대 베스트셀러 『張遠兩友相論』 연구」 『中國語文論譯叢刊』 第24輯, 2009.
- 임상범, 「‘民’에서 ‘國民’으로 -5·4運動時期 北京地域을 中心으로」 『中國現代史研究』 第2輯, 1996.

-중문-

- 張仲民, 「衛生, 種族與晚清的消費文化」 『學術月刊』 第40卷 第4期, 2008.
- _____, 「出版與文化政治:清末出版的生殖醫學書籍及其讀者」 『學術月刊』 第41卷 第1期, 2009.
- 王寄生, 「民國時期的日書漢譯」 『近代史研究』 2008年 第6期, 2008.
- 周敘琪, 「閱讀與生活:惲代英的家庭生活與 『婦女雜誌』 之關係」 『思與言』 第43卷 第3期, 2005.

<中文概要>

五四新文化运动时期知识分子的阅读生活

—集中在恽代英的日记—

权江美

史学科

诚信女子大学 大学院

如果书的历史是追踪书生产及消费过程的话，阅读史是集中探究读者是如何消费书。

中国最早的书并非是现在的形状。起初有胛骨、青铜、石头、竹子、木、丝绸等很多种。但容易携带及阅览，价格方面具有优势的纸成为了一般书的材料。

用纸制成的书虽然是具有价格竞争力，但二十世纪之前，书的价格高于当时经济力。为了降低书的价格，需要发明印刷技术、需求充分增加以及节减生产成本。

印刷技术最晚也应该是唐代初期发明，但初期的使用主要局限于朝廷。还有，宋代实行的科举考试，使需要书的人日益增加。生产成本的节减是通过纸价格的下跌、生产过程的简略而实现。

书的印刷主体主要区分为官刻本、坊刻本、家刻本，根据印刷方式，区分为抄写、雕版印刷、活版印刷。当时几乎没有著作权概念，因此存在虽然题目相同，但内容略有不同的其他版本。而且还出现为各种方言。二十世纪之前，接触书的方法主要是继承、收礼、租赁、抄写、购买。

与之前相比，二十世纪初期在很多方面出现了变化。阅读方面也如此。为了了解这些变化，计划通过初期共产党主要人士以及翻译『階級闘争(The class struggle)』

的恽代英进行了解。恽代英保留着1917年至1919年为止的日记记录。日记作为主要第一史料，已经应用于很多研究。本论文将从新的角度接近，深度描写(thick decription)恽代英的阅读生活。

恽代英幼年时期接受了传统教育，但在1911年以后接受了现代教育。他在广告一定程度发展的情况下，也仍然通过书目来获取有关书的信息。还有，全国实行邮政制度后，他通过邮政购买国内外的书。他购买了大量书，其中一半是用稿费购买，购买的书三分之一是报纸和杂志。五四新文化时期，因大量杂志的发行，使单行本的发行萎缩，而且所发行的单行本中，翻译本的比重较高。其理由是当时能叙述人们所需要的信息的作家不是很多，但也应该是杂志具有的一定程度的宏观性和比较快的发行周期等优点形成了一定的影响。他并非是封闭式地保管书，而是向周围人开放。

以五四运动为起点，恽代英看的书也发生了变化。主要重视政治方面比较进步的杂志或事实关系的掌握，并开始喜欢阅读报纸。并且跟从谈论，还阅读卫生和生殖医学书。五四新文化时期，武汉是图书馆为有名无实的城市。恽代英构建图书室后，努力向更多的人开放。不仅如此，为了实践工讀主義，还出售了书。他出售的书遵从当时的知识趋势，而且还出售了共产主义书籍。

恽代英购买书的方法、阅读书的种类与之前相比，是发生了变化，但书的信息仍然是通过书目来接触。